

등기	소송(소장)	신청	기타
소유권보존이전 전세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법인설립·변경 주식회사설립·변경등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지급명령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공탁 공증 경매 호적



쌀 재고량 쌓여...밀지고 판매

고성RPC 올해 10억 적자 예상

〈고성연합미곡종합처리장〉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인 고성연합미곡종합처리장(이하 고성RPC)이 오대미쌀 판매 저조로 올해 약 10억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된다.

고성RPC에 따르면 지난해 고성오대미 신곡 4,875톤을 수매해 지난 7월말까지 3,705톤을 판매했고, 1,170톤이 재고량으로 남았다.

고성RPC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저가 쌀 공급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판매부진으로 이어지자, 서울양곡도매상에 고성오대미 20kg을 원가인 4만2,000원(마진율 0%)보다 5,000원이나 낮춰 3만7,000원까지 판매하고 있다.

또 정부가 공공비축미 수매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쌀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 조곡(벼) 수매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매가격이 크게 낮아 고성RPC의 경영적자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고성지역 농협은 농업인들에게 40kg당 5만1,000원에 수매했으나, 정부는 이 보다 무려 8,000원이 낮은 4만3,000원에 고성RPC로부터 수매했다. 올해 고성군의 정부 조곡 수매물량은 총

1,100톤이다.

7월말 현재 고성RPC의 적자는 5억8,700여만원에 이른다. 더욱이 쌀 가격을 낮췄지만 주 거래처인 서울의 양곡도매상들이 구매를 꺼리고 있어, 올해 신곡 수매를 위해서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저가쌀 가격인 3만선까지 낮춰 재고량을 처분해야 하는 실정이라 적자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조곡(벼) 수매가 낮고 남쪽지역 저가쌀 공급에 대북 쌀 지원 중단까지 겹쳐

이재권 고성RPC 대표이사는 “이대로라면 올해 경영적자는 9억7,0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워낙 쌀이 남아돌고 있어 추곡수매 전까지 재고량을 다 판매할 지 미지수다”고 말했다.

고성오대미 판매가 부진하자 고성지역 농협들은 농협 직원 1인당 50포(1포당 20kg) 팔기운동 등 쌀 소비 촉진 캠페인에

나서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고성RPC의 적자는 조합 농협인 토성·금강·거진농협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간다.

김경수 토성농협 전무는 “1년에 손익을 5~6억원 가량을 내고 있는데 쌀 판매 적자분을 각 농협당 3억원 이상 보전해 주게 되면 조합원 배당 부분이 적어지고 사업이 월급도 적어져 경영압박이 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최소한 정부가 추진하는 조곡격리 수매의 경우, 농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지역 수매가를 감안해 전국을 기준으로 한 최저가 입찰제 대신 차등 입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성지역 농협들은 풍년이 이어지면서 고성지역의 경우 지난해 쌀생산량이 전년보다 5% 증산됐다(전국 9% 증산). 쌀 수입량도 지난 2006년 22만6,000톤에서 매년 2만톤씩 늘어나고 전라도와 충청도지역 농협이 저가쌀을 내놓고 있어, 고성쌀 판매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연간 50만톤에 이르던 대북 쌀 지원이 지난 2008년도부터 끊어진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상대적으로 농지가 적은 고성지역은 농사비용이 많이 들어 수매가를 남쪽 지역처럼 낮출 수도 없는 실정이다.

농협 관계자들은 “경제사업의 적자분은



고성RPC에서 출하를 위해 고성오대미 조곡을 가공하고 있다.

결국 신용사업에서 채워야 하는데, 최근 금리가 떨어져 손익이 내려가고 있어 이 또한 여의치 않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지역 농협이나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성RPC는 지난 2007년 조곡 4,537톤을 4만8,000원(1등급 기준 40kg당)에 수매해 2008년 1억900만원의 흑자를 냈지만, 2008년에는 4,986톤을 5만6,000원에 수매해 지난해 4억3,000만원의 적자를 냈다.

이용수 기자 ellan92@naver.com

고성 오대미

주문배달문의 ☎ 033) 633-0040~1 | 음식점 전용쌀 판매 주문즉시 가공판매

고성농협 속조직매장

※ 주문즉시 단 한포라도 가정까지 신속히 배달해 드립니다.

양양군노인복지관 개관을 축하합니다.

양양군 노인복지관 무산지역아동센터

낙산사 상락원노인전문요양원 약장 어린이 도서관

나누는 마음, 아름다운 세상

의상어린이도서관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의 등불을 밝혀 나가고 있는 낙산사복지재단은 2010년 8월 24일 양양군노인복지관의 개관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복지사업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낙산사복지재단

노인복지사업

- 낙산사 상락원(노인전문요양원)
- 낙산노인복지센터(노인주간보호)
- 양양군 노인 일자리사업 위탁운영
- 양양군노인복지관

아동청소년복지사업

- 무산지역아동센터(방과 후 공부방)
- 의상도서관(어린이를 위한 아름다운 도서관)
- 아동청소년 장학사업
- 위탁가정아동청소년 나눔사업

낙산사복지재단 대표이사 정념

문의전화 / 033-673-3080, 2685, 2686 FAX / 033-673-3081 주소 / 우)215-803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청리 203-2 홈페이지 / www.naksanwf.org

양양송이 서울서 마케팅

강남·지하철·버스 등 광고



양양군이 농어촌박람회장에 설치한 양양송이관.

양양군이 양양송이의 홍보를 위해 생산시기에 맞춘 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 사업을 강화한다.

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송이 생산시기에 맞춰 송이 구매층 밀집지역인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대형 옥외광고에 나설 계획이며, 서울 지하철 3호선에는 영상광고를 실시하고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에도 인쇄광고를 부착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이 양양송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오프라인 시음행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군은 오는 9월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명동 일대에서 송이가공식품의 야외 프로모션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양양군은 지난달 29일부터 4일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된 농어촌박람회에 참가해 송이가공식품의 시음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단풍철에 맞춰 젊은층의 유입을 위해 인터넷상의 파워블로거를 섭외, 양양군 관광지를 홍보하고, 기존 온라인 블로그에도 관광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재할 계획이다.

군은 이밖에도 관내 지역버스 광고와 케이블 채널 광고 등을 통해 양양송이의 소비촉진에 힘쓰고 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추석 전 뛰는 물가 잡아라”

농·수산물 가격 고공행진 계속…속초시, 조만간 대책회의

무·마늘 작년보다 두 배 올라…고등어 1손 7천원

추석을 한달 앞둔 가운데 농산물 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되자 추석 물가잡기에 비상이 걸렸다.

속초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상기온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채소와 과일값의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추석 물가가 들쭉이고 있다.

시가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이달 둘째주(조사일 8월 11일)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물가자료를 보면, 채소와 과일 등의 농산물은 물론 수산물도 전반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조사일 8월 10일)보다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무(잎 제거·1kg)는 지난해 920원에서 1,820원으로 2배 정도 올랐고, 열무(중품 1kg)는 1,500원에서 2,370원으로 870

원 인상됐다. 지난해 1,400원이던 배추(통배추 1kg)는 1,820원으로, 1,500원이던 파(대파 1kg)는 2,350원, 양파(국산 1kg)는 1,450원에서 1,870원으로 올랐다.

또 사과(부사 10개·개당 250g)는 8,660원에서 1만3,000원으로, 감자(백색감자 1kg)는 1,700원에서 1,920원, 고구마(1kg)는 3,600원에서 4,370원으로 올랐다. 25cm 크기 오이 10개는 4,370원에서 6,750원으로 2,300원이나 경총 뛰었다. 이와 함께 제주산귤 10개(개당 100g)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마늘(국산 간마늘 1kg)은 3,870원에서 8,070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수산물 가격도 오름세가 이어져 냉동 오징어 10마리는 1만1,25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수입산 콩치 10마리는

5,330원에서 7,000원, 마른멸치 300g은 4,66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다. 국산 고등어 1손(70cm)은 7,000원에, 국산 갈치(250g)는 7,500원에 각각 판매됐다.

한 시민은 “이상기온에 따른 농산물 가격 인상에도 피서철까지 겹쳐 전반적으로 가게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이 같은 물가 오름세가 추석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기로 하고, 조만간 물가대책회의를 열어 추석 물가잡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상기온에 따른 농산물 가격 인상으로 물가가 전반적으로 인상된 것 같다”며 “채소와 과일의 출하량이 늘어나면 가격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사업비 엄격 심사 예산낭비 막는다

양양군 계약심사제 본격 시행…경리부서 기술직 배치

양양군이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계약심사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구입 시 사업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해 다각적이고 정밀한 원가분석을 벌여 산정 오류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심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경리부서에 기술직 공무원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상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중 건설공사는 추정금액이 종합은 2억원 이상, 전문은 1억원 이상이며, 용역사업은 3,000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 구매는 2,000만원 이상이다.

또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변경된 사업이 해당된다.

강원도 계약심사 대상(공사 4억원 이상·용역 5천만원 이상·물품 2천만원 이상)과 조달발주사업, 천재지변 등 긴

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등은 이번 군 계약심사에서 제외된다. 군은 물가정보지, 시중거래가격조사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고 특히 공사발주 시에는 도면, 설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방법선정 여부 등을 심사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체 심사대상 사업은 매년 300억원 가량된다”며 “계약심사를 통해 7~8%의 예산절감과 부실공사 예방, 구매물품의 품질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고향사랑 경로한마음 축제

재경 속초시민회에서 어르신들께 인사드립니다.

재경속초시민회원들은
고향의 부모님을 모시고 작은 문화 공연으로 즐거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 시: 2010. 09. 04(토), 14:30 ~ 17:30

○장 소: 청소년실내체육관 (노학동 종합운동장)

○문화공연: 속초시립 풍물단, 민요, 트롯, 대중가수 축하공연 등

주 최: 재경속초시민회

주 관: 재경속초시민회,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속초시 통장협의회

주 원: 설악신문사, 농업중앙회 속초시지부, 속초시여성단체협의회, 속초시자원봉사센터, 경상도민회, 전라도향우회, 충청도민회, 이북5도민회, 뉴통일관광

고성군,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검토

황종국 군수 “교육 여건 개선 · 지자체 존립 차원 도입 바람직”

민병희 도교육감과 간담회
전체 소요액 15억 예상

고성군이 2011학년도부터 초·중·고교의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검토키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황종국 군수는 지난 16일 고성군청을 방문한 민병희 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학교 무상급식 도입에 찬성한다”며 “내년에 초등학교뿐 아니라 관내 전체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병희 도교육감은 이날 “의무교육은 차별없이 국민에게 교육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학교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내년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과 2013년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교육감은 “이미 정선과 평창, 횡성이 친환경 무상급식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속초와 양양 등 설악권 뿐 아니라 도내 다른 지자체도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공감하고 있다”며 “도내 모든 지자체가 무상급식 협약을 맺



민병희 도교육감과 황종국 고성군수가 지난 16일 군수 집무실에서 학교 무상급식지원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교육감은 “무상급식 지원은 단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농수산물 학교 무상급식에 공급되도록 해 농어업인들의 수익에도 도움을 주는 ‘로컬푸드’ 방식까지 이뤄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예산지원은 도교육청 50%, 도와 시·군 50%며, 민병희 도교육감은 내년부터 초·중·고교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추진해도 전액의 50%를 도교육청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종국 군수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학생

외부 유출 문제는 지자체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교육 여건 개선 뿐 아니라 지자체 존립 차원에서라도 초·중·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재정여건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실무진들과의 협의가 불가피하다”며 “무상급식 추진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마친 후 (무상급식)협약에 나서겠다”고 했다.

현재 약 3,000명 규모인 고성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무상급식을 전면 도입할 경우 전체 소요액은 약 15억원이며, 이중 고성군 부담액(25%)은 적어도 3억7,5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홍수 기자 ellan92@naver.com



지난 12일 박명종 설악신문 대표이사가 두만강신문을 방문, 오점보 사장에게 자매결연 패를 전달하고 있다.

설악신문 대표단, 두만강신문 방문

정보교류 등 환담...2007년 자매결연 체결

설악신문사 박명종 대표이사 와 고영진 전무이사, 전태극 속초민예총 전 지부장이 지난 12일 오후 5시30분 중국 길림성 훈춘시 두만강신문사를 방문, 기사교류와 정보교환에 대해 환담했다. 두만강 신문 오점보 사장은 “본사 방문을 환영하며 속초와 훈춘이 자매도시로 두 도시 간 미래지향적인 교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명종 대표이사는 “먼저 답방이 늦어 죄송하며 조금 늦더라도 돈독한 교류가 중요하다. 두 도시의 관광지 소개는 물론 무역 등 실질적 정보교류에 나서자”고 강

조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9월 9일 두만강 신문 오점보 사장과 박혁 부사장 등이 설악신문사를 방문, 본사 관계자들의 훈춘 방문을 제안함에 따라 이뤄진 답방이었다.

두 신문사는 지난 2007년 9월 양방간의 정보교류와 방문을 통해 두 지역의 경제, 문화 발전을 촉진하기로 자매결연 우호협력협의를 체결했다. 한편 두만강신문은 중국 훈춘시에서 중국어, 한글, 러시아어로 대판 4면으로 발행되는 일간지며 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수영 프리랜서 기자

산란기 은어 포획 단속

양양군, 10월15일까지

양양군이 은어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15일까지를 은어 불법어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로행위 단속에 나섰다.

군은 지난 15일부터 불법어업 일제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이 기간동안 단속반을 편성, 내수면 불법어업행위를 단속하며

특히 새벽·야간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남대천 본류와 지류, 화상천 등 우심지역에 대해 강원도와 합동으로 불법어업 단속반을 편성, 불법포획 행위와 불법어구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 중 은어를 잡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주현 기자

인구주택 조사요원 모집

속초시는 2010 인구주택 총조사에 종사할 조사요원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24일~다음달 2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동별 관

리자 8명, 조사관리자 17명, 업무보조원 9명 등 모두 221명이다.

참가자격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조사요원 채용신청서를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지(www.Census.go.kr)에 직접 등록하거나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조사요원들은 업무에 따라 16일~54일간 근무하며, 1일 4만750원~4만6,710원을 받게 된다. 고영진 기자

반/야/노/인/요/양/원 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은 ‘더 없이 깊은 사랑’ 입니다.

어르신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어르신에게 더없이 깊은 사랑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에게 그 어르신다운을 지켜드립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곳 반/야/노/인/요/양/원 입니다.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원등급 1, 2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입소구비서류: 장기요양보험등급인정서, 주민등록등본 1부
질환에 관련된 건강진단서 1부, 전염성여부에 관련된 건강진단서 1부
수급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설악산 신흥사복지재단 반야노인요양원 주소 217-070 강원 속초시 노학동 455-16번지
전화 033)635-9445 팩스 033)635-5634 홈페이지 www.shwelfare.com

문의 : 033)635-9445, 635-5649

양양군 재난관리 통합 운영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양양군은 각종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 운영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국비 2억원, 군비 3억6,500만원 등 총사업비 5억6,500만원을 들여 군청 2층 상황실을 개조해, 최첨단 영상 및 음향시스템으로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을지훈련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시험 운영을 거친 후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은 물놀이 감시 및 적설량 파악을 위해 현 북면 법수치리, 강현면 둔전리 등 4개소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재난관리 담당부서를 종합상황실에 배치해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련 상황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할 방침이며 33개소의 관제장비 및 재난시스템이 통합 운영돼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주현 기자

죽왕면장학회 장학금 전달



고성군 죽왕면장학회(회장 문원길)는 지난 19일 오전 죽왕면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에서 제5회 죽왕면장학회 수여식을 열어 장학생 10명에게 각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죽왕면장학회는 지난 2006년 7월1일 발족하면서부터 장학금을 지급해, 올해로 5회째다. 장학금은 죽왕면 소재 설악선밸리C.C를 운영하는 동광개발(주)이 매년 2,000만원씩 10년간 기탁하는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죽왕면장학회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죽왕면 주민 자녀 중 대학생 54명과 고교생 12명 등 66명에게 총 6,000만원의 장학금 수여했다.

이용수 기자 ellan92@naver.com

양양군 향토자원 조사

청년 일자리사업 통해

양양군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0 향토자원 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역성 또는 전통성을 지니고 경제적 이용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조사해 권리와 및 자산화 등으로 명품화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역고유의 천연기념물을 비롯해 양양 5일장, 문화예술인, 특산물, 식품류 등 향토자원 예비조사목록 200여개를 선정하고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향토자원의 내용, 보유조직 형태, 부가까지 발생경로, 권리화 및 연구개발 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군은 향토자원조사사업에 참여할 청년참여자 10명을 지난 18일까지 모집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요구

도내 자치단체장들도 한 목소리

도 시장·군수협의회, 건의문 채택

설악권 5개 시·군이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한 가운데 도내 18개 시·군 자치단체장들도 조기 건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8일 서울~춘천(양구·인제)~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개설사업이 현 정부 내에서 반드시 착공되고, 통과지역 시·군에 역사(驛舍)가 설치될 수 있기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보

냈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지난 13일 춘천에서 열린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의에서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에 도내 18개 시·군이 공동 대처키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설악권지역과 강원 접경지역은 연안 어족자원 고갈과 관광산업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일본 등이 연합해 두만강지역과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환동해권에 대한 활발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동서고

속화철도 조기 건설이 반드시 확정돼야 하고, 내년부터 기본설계 등에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속초시는 "중국과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연결되는 두만강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입 물동량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동서고속화철도의 조기 착공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설악권 5개 시·군은 지난달 28일 이광재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고성군 내달 1일부터 분양

분양가 1㎡당 7만원

고성군은 오는 9월부터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분양에 들어간다. 군은 "오는 24일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에 대한 분양공고를 내고 9월1일부터 30일까지 분양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분양을 희망하는 업체는 고성군청(신성장개발과 기업유치팀, 680-3065)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입주신청 업체는 접수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개별통보하게 된다.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죽왕면 오호리 304-11번지 일원에 10만3,715㎡ 규모로 조성 중인 해양심층수 농공단의 생산시설용지는 총 7만1,463㎡로, 분양가격은 1㎡당 7만원이며 1필지 1,650㎡ 이상을 기준으로 분양한다.

1개 업체당 1개 필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개 이상 필지도 분양이 가능하다. 건축행위는 건폐율 70%·용적율 150% 이하, 층수 3층 이하로 제한되

며 입주대상은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체다.

분양 우선순위는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기업이나 협동화(집단화)로 입주하는 기업, 농수축산물 등 현지 부존자원을 제품원료의 50%이상 활용하거나 현지인 50%를 채용하는 기업, 분양대금 일시납 또는 우선 완납하는 업체 등에게 우선순위 혜택이 주어진다.

입주업체 계약체결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분양대금의 10%를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이뤄지며, 중도금은 계약체결일 90일 이내에 총분양 잔금의 40%를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최종 잔금 50%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용수 기자

주민센터 동장·사무장 동시 교체

속초시 지난 13일자 인사, 기존 관례 깨

8곳 중 6곳 해당

속초시가 지난 13일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기존의 관례를 깨고 일선 주민센터의 동장과 사무장(행정민원담당·주무담당)을 동시에 물갈이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주민센터를 확대하는 처사"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이번 인사에서 8개 주민센터 중 6개 주민센터 동장과 사무장을 동시에 전보 조치했다. 그동안 일선 주민센터의 경우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장과 사무장 중 1명만 우선 전보시키는 것이 관례였다.

조양동주민센터의 경우 김현석 동장이 의회사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6급인 김정은 행정민원담당과 임명분 주민생활지원담당도 본청으로

전보됐다.

또 대표동주민센터도 이맹섭 동장과 권금선 주무담당이 본청으로 전보됐으며, 동명동주민센터 또한 조동현 동장이 교통장으로, 이일형 주무담당이 창의교육노사담당으로 전보되는 등 동장과 사무장 모두 자리를 옮겼다.

지난달 김순태 동장의 명퇴 신청으로 동장 자리가 공석이었던 청호동주민센터 또한 이주총 주무담당이 이번 인사에서 전보됐고, 사무장격인 행정민원담당이 바뀐지 2달밖에 안된 노학동주민센터도 박용하 동장이 본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여기에서 교통주민센터는 지난 6월 임흥빈 동장이 대포항개발사업소장으로 자리를 옮긴데 이어 이번 인사에서 5급으로 승진한 이정근 사무관이

동명동장 직무대리로 전보되고 이성수 행정민원담당도 예산계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동장과 사무장이 잇따라 교체되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 이후 시청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일선 주민센터의 인사를 꼬집는 비난의 글이 올라왔다 삭제되기도 했다.

한 주민은 "동장과 사무장이 모두 바뀌더라도 당장 일선 주민센터 업무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 바뀐 동장과 사무장이 업무와 동네 특성을 익히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며 "이번 인사가 마치 주민센터를 확대하는 느낌이 들어 아쉽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민선 5기를 맞아 직장 분위기가 쇠신 차원에서 이번 인사를 단행하게 됐다"며 "주민센터의 경우 본청 근무자들이 주민센터 근무를 선호하는데 주민센터 근무자들 또한 근무환경 변화를 위해 이같은 인사가 이뤄지게 됐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채낚기 외국인선원 복지시설 건립

속초시, 숙소·식당 등 갖춰 11월말 완공...70여명 수용

속초시는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관내 외국인 선원들을 위한 복지회관을 오는 11월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청호동 1341-13번지 향만부지에 국·도비 등 8억원을 들여 7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선원 복지시설을 이달 중순 착공, 오는 11월 완공하기로 했다.

외국인 선원 복지시설은 1,134㎡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되며, 사업추진은 속초수협에서 맡게 된다.

1층에는 숙소와 식당, 체력단련실,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이,

2층에는 관리사무실과 휴게실이 들어선다.

시는 외국인 선원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향만공사시행허가 및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가 지난달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복지시설이 건립되면 외국인 선원들의 숙식문제 등 복지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돼 어업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선원 고용증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속초지역은 통발어업 외국인 선원들의 경우 전용숙소가 마련

돼 있으나, 채낚기어업 외국인 선원들은 별다른 숙소가 없어, 선주들이 자비를 들여 숙박장소를 마련하거나 자기 집에서 이들의 숙식을 해결하는 등 조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편, 이달 현재 속초지역은 모두 39척에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온 90여명의 외국인 선원이 종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복지시설의 건립에 따라 외국인 선원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환동해 중심도시 건설 노력”

신임 김지윤 속초시 기획감사실장

지난 13일자 속초시 인사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난 김지윤 실장(57, 사진)은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과 동북아 신향로 조기 정상화로 속초시가 환동해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의 기획조정 담당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속초 출신으로 대포초교와 속초고교를 졸업했다. 지난 78년 지방행정 4급을 류(현 7급)로 공직에 입문해 새마을계장과 기획계장, 감사

계장을 거친 후 지난 95년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대포·청호동장과 엑스포 운영과장, 북방교류사업소장, 사회복지과장, 회계과장, 자치행정과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08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역임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양양 남대천 야경명소로 조성

제방도로·낙산대교 등에 경관조명 설치

양양대교를 중심으로 한 남대천 줄기가 야경 감성지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낙산대교와 제방도로 등에도 경관조명이 설치돼 야경 명소로 부각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해 양양교를 재가설하면서 8억8천만원을 들여 교량의 난간과 웬스, 케이블 와이어에 경관조명을 설치한데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남대천 제방도로와 낙산대교에도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다.

군은 이와 관련, 총사업비 2억3,500만원을 들여 양양교~낙산대교에 이르는 2.5km구간의 남대천 제방도로에 송이, 연어 등 지역 이미지를 형상화한 공원경관등 48개를 이달 말까지 설치해 명품가도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낙산과 오산지역을 잇는 낙산대교에는 7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양양교와 같은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특히 남대천 하구의 풍부한 수량을 활용해 수중경관을 연출하는 특수조명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벚꽃 개화기에는 야간경관을 활용한 남대천의 문화예술제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양양군의 경관명소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남대천 경관조성사업이 완공되면 송이조각공원과 제방도로 벚꽃길, 남대천의 생태 등 양양군의 자연경관이 한층 더 부각돼 지역명소는 물론 관광자원화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지방세 과오납금 돌려 받으세요”

고성군, 연말까지 접수

고성군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과오납금을 돌려주기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과오납금 미 환부액은 1,385건에 820만원이며, 2008년 소득세법 개정과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 올해 자동차 폐차 및 이전에 따른 자동차세 감액 등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들이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각 가정별로 과오납금 환부통지서를 지난 1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했다.

과오납금 환급신청은 환부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환급담당자에게 전화로 신청하거나 지방세통합정보시스템 위택스

(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환급 받을 수 있다.

또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성군청 재무과 징수팀(033-680-3286)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과오납금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간 수령해 가지 않는 과오납금은 군의 잡수입으로 처리되니 납세자들이 관심을 갖고 소액이라도 반드시 신청해 납세자의 권리를 찾기 바란다”고 했다. 이용수 기자

속초시, 폐의약품 수거

속초시가 환경오염 및 변질의약품 복용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의약품을 수거한다. 시는 이달 초 보건소와 약국 등 44개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했다. 이우철 기자

공무원 6백여명 배출, 사회복지사 3천명 양성(영동권 최초), 건강가정사 500명 양성(강원도 최초) 상담심리전공 신설(강원도 최초), 전국 취업률 3위 기록(전국)

동우대학 사회복지학부에게 길을 묻다!

● 수시모집 기간 : 2010. 9. 8(수) ~ 2010. 11. 26(금)

● 합격자발표 : 2010. 12. 3(금)

● 접수방법 및 준비서류

- 준비서류: 입학원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등 모집요강 참조
- 접수방법: 본 대학 홈페이지 www.duc.ac.kr 참조

● 연락처: 033) 639 - 0563

● 모집인원

구 분		정 원	주 간	야 간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전공	200	120	80
	상담심리전공			
	복지행정전공			



29년 전통의
동우대학 사회복지학부
SCHOOL OF SOCIAL WELFARE

유기동물 새 주인에게 분양

28일 속초시생활체육관 · 29일 양양장터서 행사

개 · 고양이 등 30여 마리

“유기동물 분양해 가세요.”

(사)한국애견협회 속초양양지회와 한국펫샵협회 속초양양지회가 유기동물을 무상으로 분양하는 ‘유기동물 방지 캠페인 및 유기동물 무료 분양 행사’를 오는 28~29일 연다.

28일 오후 1시~4시 속초시생활체육관과 29일 오전 9시~오후 5시 양양장터에서 열리는 이번 무료분양에는 개, 고양이 등 30여 마리의 유기동

물이 새 주인을 만나게 된다.

희망자는 현장에서 분양받을 유기동물을 정하고, ‘분양받은 유기동물에게 병이 발생했을 시 즉각 치료해 준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에 사인만 하면 분양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분양이 가능하다.

김성환 애견협회 속초지회장은 “현재 보호 중인 50여 마리 중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어린 유기동물들을 분양

한다”며 “펫샵협회의 도움으로 꽃단을 하고 분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버려진 동물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줄 새 주인들이 꼭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지회장에 따르면 매년 속초지역에서만 2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접수되고 있으며, 개가 가장 많다. 유기동물 신고는 속초시청 민원봉사과로 하면 된다. <문의: 011-375-2375>

이우철 기자 wooddal8506@naver.com

다문화가족 건강검진

속초의료원, 110명 대상



속초의료원(원장 한현)이 속초고성양양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속초의료원의 2010년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검진은 설악권 다문화가족 부부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와 관련, 의료원은 지난 18일 속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약을 맺었다.

검진 과목은 혈액검사(간염 · 갑상선 · 콜레스테롤)와 위내시경, 자궁암(여성), 간암, 간초음파(남성) 등 10종이다. 검진은 이달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화 · 수요일 의료원에서 이뤄진다.

이우철 기자

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양양군 TF팀 구성, 안전시설도 점검

가정통신문 발송 협조 요청

양양군은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안전시설 및 단속장비 등을 일제 점검하고 주정차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행정, 경찰서, 교육청 관계자로 구성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강화 TF팀이 구성돼 이달 말까지 양양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15개소를 대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여부 및 횡단보도 설치의 적정성과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상태, CCTV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

군은 점검결과 미흡한 부분은 일제 정비하고 오는 30일부터 9월말까지 경찰

서와 합동으로 단속팀을 구성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초등학교, 유치원 주출입문 주변의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 · 학원차량 등)의 주 · 정차 위반 행위를 비롯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안의 상시 주정차 위반행위, 횡단보도 10m이내 등 주요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다.

군은 불법주정차 자제를 요청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확대와 보육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등을 교육청, 경찰서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저소득층 연탄 보조

고성군 대상가구 접수

고성군이 연탄가격 인상에 따라 31일까지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가구의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원대상가구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최저생계비 120%(4인 기준, 월 164만원) 이하의 차상위계층가구 또는 최저생계비의 130%(월 177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정, 만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연탄쿠폰 지원신청서와 저소득층 관련 증빙서류를 거주 읍 ·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연탄가격 고시 지연으로 연탄보조사업 지원액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기준인 가구당 15만원 수준에서 연탄쿠폰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고성지역 저소득층 510가구가 연탄보조사업 지원을 받았다.

이용수 기자 ellan92@naver.com

범인검거 유공 직원 포상



신상석 속초경찰서장은 지난 17일 집무실에서 13일 조양동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절도범 검거에 공이 많은 청초지구대 김현남 경장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고명진 기자




SALE!

10,000원 30,000원 70,000원

할인행사 (봄 · 여름)

30% 세일 + 추가할인

인디안 속초점 635 1236

KT 속초지사 건너편 정내과/고려산부인과/우리약국 1층

동명항 북방파제, 관광객 많이 찾는데...

낙시 · 피서객 버린 쓰레기 곳곳 방치

악취까지 진동

속초 동명항 북방파제에 피서객들과 낙시객들이 버리고 간 각종 생활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돼 있어,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동명항 북방파제. 이곳은 지난해 12월 연장공사(220m 구간)가 끝난 후 새로운 관광코스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인기를 얻고 있어 이날 평일인데도 막바지 피서객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임시 휴지통이 마련된 북방파제 입구와는 달리 중간지점(활어회센터에서 북방파제 등대 방면으로 100여m 지점)부터는 각종 생활쓰레기가 그대로 널려 있어 해안경관을 심하게 훼손했다.

방파제 중간 지점에는 낙시객들과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과자봉지와 음료수병, 캔맥주, 각종 음식물쓰레기 등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특히 이곳에서 100여m 구간은 10~20m 간격으로 군데군데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각종 생활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어 악취가 진동할 정도였다.

여기에도 방파제 아래 사석(물 밑에 던



동명항 북방파제가 피서객과 낙시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져 넣어 기초로 삼는 돌)에는 해류에 떠밀려온 각종 폐플라스틱과 생활쓰레기가 여전히 널려 있어(본보 5월 19일자 7면 보도)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 주민은 최근 시청 홈페이지에 각종 생활쓰레기로 덮여 있는 방파제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불만의 글을 올려, 관계기관의 무대책을 질타하기도 했다.

한 피서객은 “방파제를 걸으니 너무 좋다”며 “하지만 방파제 곳곳에 널려 있

는 생활쓰레기 때문에 불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현장에 나가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쾌적한 관광지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동명항 북방파제는 올해부터 속초항이 국가관리 항만에서 지방관리 항만으로 분리되면서 강원도한동해출장소가 현재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이달말까지 해변 관리

물놀이사고 50건 발생

속초해양경찰서는 동해안 대부분의 해변이 폐장해도 막바지 피서객들을 위해 이달 말까지 해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속초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변이 22일을 기해 폐장하지만, 물놀이 사고가 해변 폐장 후에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안전요원들을 배치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 · 포구와 갯바위,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순찰과 안전관리자 비상주 해수욕장에 대한 현장 점검, 간이 해수욕장 안전관리 책임자 등과의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경은 관내 해수욕장이 개장한 지난달 1일부터 현재까지 해수욕장 물놀이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만명이 늘어난 1,000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했다.

이 기간 중 물놀이 등 안전사고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50분경 화진포해수욕장에서 소형 고무보트를 타다가 전복돼 구조된 진모군(10) 남매를 비롯해 현재까지 모두 50건이 발생해 71명이 구조됐다.

속초해경은 올해 속초해수욕장을 24시간 상주근무체제로 시범운영한데 이어 낙산 등 주요 해수욕장 8개소에 총 46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고명진 기자

자동차 중고물품 판매

인터넷 사기 20대 구속

속초경찰서는 자동차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서 자동차 관련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고 동호회원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로 한모씨(25, 서울시)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경 자동차 인터넷 중고자동차 동호회사이트에서 한 동호회원에게 특정 자동차의 차량번호를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2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167명에게 2,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이다.

고명진 기자

선거법 위반 양양군수 벌금 300만원 구형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16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 양양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안호봉) 심리로 열린 결심공

판에서 “호별 방문과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군수는 6·2지방선거에 앞서 선거구민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버스 운전기사와 주민 2명에게 모두 20

만원의 현금과 7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선거구민의 집을 방문해 남편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의 부인 김모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이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9시50분 열린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2010학년도 속초과정 22기

최고경영자과정(AMP)모집안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강원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에서 CEO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40명 내외
- 지원자격 : 학력제한 없음
 - 1)공 · 사기업체 임직원
 - 2)공무원
 - 3)각 군 장교 및 간부
 - 4)본 과정에 관심이 있는 자 중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 원서교부/접수 : ~ 9월 8일(수)
- 입학식 : 9월 10일
- 제출서류 : 입학지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 제출처 :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행정실 또는 주임교수 김창기(010-6655-2510)

- 전형방법 : 서류심사

- 기타사항

-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2)1년과정(매학기 12주 강의, 매주 목요일 19:00~21:50)
- 3)강의장소 : 엑스포기념관 세미나실(속초시 조양동)
- 4)문의처 :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행정실 AMP담당

Tel. (033)250-6103 주임교수 김창기((010-6655-2510)

KNU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양양국제공항 주변 관광레저시설 조성

양양군, 민간투자자 공모...31만9㎡ 규모 2014년 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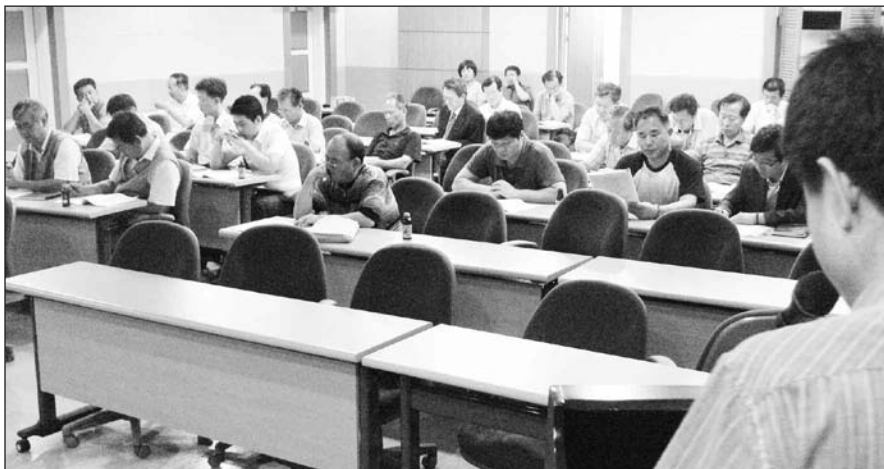
골프장·관광숙박시설 등
9월7일까지 제안서 접수

양양군이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항 인근지역의 관광 레저사업 개발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군은 손양면 학포리 양양국제공항 주변 149-1번지 일원 30만 7,179㎡(군유지 28만 7,158㎡, 국유지 2만 21㎡) 부지에 골프장,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18일 오후 2시 문화복지회관 2층 소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관광레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법인은 연간 매출액 100억원, 금융자산 50억원 이상, 개인은 연간 매출액 및 금융자산 50억원 이상이다. 휴업중이거나 영업정지, 인허가·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폐업신고를 한 업체 및 사업자는 제외된다.

군은 9월7일까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양양군이 지난 18일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항 인근지역 관광 레저사업 사업자 공모 설명회를 열고 있다.

를 접수받은 뒤,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 방법에 의해 낙찰자(최고가)를 결정해 군유지를 매각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양양군과 양해

각서 등 협약서를 체결해 사업계획 부지 내 군유지 16필지 28만 7,158㎡(예정가격 40억 6,000만원)를 매입하고 도로와 구거 등 국유지 매입과 각종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사업대상자가 군유지 매

입 후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에 적합한 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완료하지 않거나 실시계획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매각한 군유지를 환매하는 한편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토지를 매각 할 수 없도록 특약조건을 제시하는 등 자본력을 갖춘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해 조기에 사업을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올해 말까지 사업대상자에게 군유지를 매각하고 2012년 상반기까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사업에 착수, 2014년 완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양양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인근지역의 골든비치 골프리조트,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수산항, 낙산해변, 사이클 경기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돼, 문화·관광·체육의 벨트화로 공항 활성화는 물론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양양공항 주변지역이 양양군의 중요한 거점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업체가 선정되면 고용 인력의 70% 이상 지역주민 채용과 관내 농수산물 이용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고성한우판매장 운영 늦어져 애태워

향목리주민들 "추석 전 가능할지"...준공검사 지연

진입로 교통시설물 보완 이유

고성한우 전문판매장이 완공된 지 한 달이 넘도록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아 운영 주체인 향목리 마을주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고성군은 죽왕면 향목리 산 1-3번지 일원 9,917㎡ 부지에 총 11억 7,000만원을 들여 지난 3월부터 4개월간의 공사 끝에 지난달 16일 연면적 512㎡의 한우판매장 1동과 1,200㎡의 주차장을 갖춘 고성한우 전문판매장을 건립했다.

고성한우판매장은 2억원 상당의 부지를 고성군에 기부채납 한 향목리 마을회가 약 3년간 무상임대로 운영하게 된다.

향목리마을회는 지난달 고성한우전문판매장의 준공검사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을 위해 정육과 주방직원을 모집하고, 냉장고와 집기류 등도 모두 구비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준공검사 지연으로 한 달이 넘도록 내부 인테리어와 집기류 설치를 못하고 있고 직원들에게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또 축산농가에 한우 도축까지 예

약한데다, 출향민들에게 8월부터 고성 한우를 인터넷 주문판매한다고 홍보까지 해 놓은 상태다.

함동읍 향목리 향우사랑회장은 "일반 관급공사는 10일 정도면 준공검사를 마치는 데 한우 판매장은 왜 준공검사가 지연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달 중으로 준공검사가 나와도 시설설치와 내부 인테리어 등을 하려면 보름 이상이 걸려 추석 전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지 걱정이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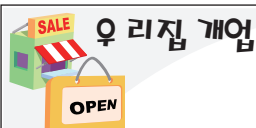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해당 판매



향목리에 완공된 고성한우 전문판매장.

장의 진입로가 새롭게 개설됐으나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 때문에 준공검사가 늦어졌다"며 "조속히 보완을 완료해 이달 중으로 준공검사를 마칠 것"이라고 했다. 향목리 마을회는 집기류 등의 구입을 위해 1가구당 430만원씩 총 28가구가 1억 2,000만원을 출연했다.

이용수 기자 ellan92@naver.com



직접 만드는 게살 오징어순대 별미

게살이 들어간 이색 오징어순대를 직접 만들어 파는 냉면집이 지난달 속초 청호동 신평마을 초입(낙시점 인근)에 문을 열었다.

노학동에서 속초북전문점을 운영했던 김하식 대표가 새로 연 '북청아바이냉면' (대표 김하식)이 그곳. 김 대표는 살아 생전 고향 북청(함남)을 그리워하던 부친을 생각하며 가게 이름을 지었다.

이곳에서는 '흥게살'을 첨가해 만든 오징어순대를 별미로 내놓고 있다. 게살 오징어순대는 북고성 출신인 김 대표 모친인 함옥춘(75)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

내고 있다. "공장에서 받는 그냥 오징어순대가 아니야. 게살하고 쌀, 고기 다진 것, 오징어 다리, 야채들로 속을 만들지. 게살이 들어가서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그만이야."

음식은 손맛이 들어가야 제 맛이라는 말과 함께 굵은 팥방울을 흘리던 할머니는 오징어순대에 넣을 속을 다 만들고 나서 아들 김하식 대표를 부른다. 김 대표는 미리 손질해 놓은 살집이 두툼한 오징어를 부엌으로 들였고, 할머니는 투박한 손으로 오징어 배가 터질 만큼의 속을 넣고는 "이제 내 할 일은 끝"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오징어순대를 찜통에 넣어 쪄 낸다.

예전 북 전문점을 운영할 때 만큼 매상을 올리지는 못하지만, 김 대표는 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만들면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북청아바이냉면과 김 대표의 집은 칸막이 하나를 두고 붙어 있다. 아침 9시면 문을 열고 마지막 손님이 자리를 뜰 때까지 장사를 한다. 김 대표는 "현석 북 사건이 터지고 북 장사를 접을 결심을 하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우려가 들었는데, 막상 차리고 보니 동네 사람들도 자주 접하게 되고 가족과도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 이만저만 좋은 일이 아니다"며 "새로 터를 잡



김하식 대표가 북청아바이냉면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은 이곳을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음식점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메뉴는 △오징어순대 △아바이순대 △모듬순대 △냉면 △아바이순대국 △왕갈비탕 △수육 등이 있으며, 청호동지역은 배달이 가능하다. <635-2795>

이우철 기자 woodda18506@naver.com

러시아 냉동명태 1천톤 시범수입

고성군·라조브스키군 자매결연 협정 체결...이달 30일 전후 속초항으로

주민·가공업체 등에 판매

고성군이 제시한 러시아 냉동명태 수입 조건(본보 8월 16일자 보도)이 대부분 관철되면서 예정대로 지난 20일 고성군과 라조브스키군간의 자매결연 협정이 체결됐다.

고성군과 라조브스키군은 이날 오후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베데에프사'에서 황종국 고성군수와 문명호 의장, 박효동 도의원, 나스페비치 빅토르 토르피 모비치 라조브스키 군수, 삭신 세르게이 베데에프사 사장 등 양 지자체 관계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협정서를 체결하고,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양 지자체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농·수·축산업의 진흥과 생산물 교역을 통한 공동이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경제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교류 협력하기로 했다.



고성군과 러시아 연해주 라조브스키군이 지난 20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양 지자체간의 자매결연 협정식을 가졌다. 사진은 냉동명태 직수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 라조브스키군수가 고성군을 방문한 후 황종국 고성군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역을 위해 합의 하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원활한 교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황종국 군수는 "고성군과 라조브스키군은 동북아의 동반자로서 상호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

이다"며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고성군이 환동해안권 중심지역으로 자리잡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고성군과 라조브스키군과 자매결연의 핵심사업은 명태다.

고성군은 이번 자매결연에 앞서 지난 11일 러시아 현지에서 러시아 수입업체인

'베데에프사'와 냉동명태 수입 계약을 위한 협상을 벌여 냉동명태 시범수입 물량을 1,000톤으로 확정했다.

당초 고성군은 시범물량으로 1,500톤을 수입할 계획이었으나, '베데에프사'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때문에 이보다 적은 물량을 제시해 이처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냉동명태 수입 규모 및 가격은 35~45cm급의 경우 톤당 900달러에, 코다리용인 30~34cm급은 톤당 740~750달러에 수입하기로 확정했다.

또 수입 시기는 명태수요가 많은 추석 이전인 이달 30일 전후에 속초항에 도착하도록 했으며, 대금결제는 현지도착 확인 후 결제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고성군은 수협을 통해 수입 명태 전량을 고성지역 주민과 가공업체 등에 판매할 계획이다. 가격은 수입과 운반비용, 통관비용, 판매 수수료 등 실비만 받고 일체의 이윤 없이 판매될 예정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민간 업체가 아닌 관이 주도적으로 명태를 수입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과거 국내 명태의 주산지였던 고성군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러시아 명태를 직수입해 옛 명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홍수 기자

연어가공식품 9월부터 본격 출시

셀몬푸드, 남대천 하류에 가공시설 완공...소시지·떡갈비 등 생산

양양 남대천 연어산지가공시설이 생산체제를 모두 갖춰 본격적인 상품 생산을 앞두고 있다.

군에 따르면 연어산지가공시설인 양양 셀몬푸드(대표 박정란)가 정부의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 지난해부터 추진한 연어 산지가공시설이 생산체제를 완비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연어 가공제품이 본격 생산된다.

셀몬푸드는 연근해로 회귀하는 연어 전량을 활용해 연어 가공제품 100여종을 생

산하고, 동해연안에 회유하는 도루묵, 임연수어, 청어 등을 이용한 400여종의 수산물 가공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셀몬푸드는 그동안 공장 설립과 함께 생산설비 시험가동에 이어, 연어생선가스와 소시지, 연어떡갈비 등 3종의 시제품 개발 및 시식회, 영양성분 분석을 이미 마쳤다. 또 환경친화적인 수산물 가공시스템을 완비하고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을 신청, 심사 중에 있으며 올 11월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셀몬푸드는 오는 9

월부터 서울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에 출시하고 관내 초중고교 급식에도 납품할 예정이다. 제품에 대한 반응도와 소비자 만족도를 점검한 뒤 연어스테이크와 훈제구이, 초밥 등을 추가로 개발해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연어산지가공시설은 남대천 하류인 손양면 송현리 627-6번지 인근에 총 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건립됐으며, 전 생산과정을 관람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인근의 냉수성어류센터와 남대천을 연계

한 생태환경교육의 장소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가공공장과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할복·세척·채육·조미·건조·훈연시설 등 수산물 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전 과정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있다.

한편, 양양군은 남대천 하구 및 연어소상로 주변 일원 20만㎡를 연어특구를 지정해 연어 테마파크, 연어아트센터 등을 건립하고 연어산업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 모천 회귀기능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연어에 스토리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미한 '연어콘텐츠사업', 소도읍육성사업인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조성사업', 양양읍내와 남대천을 순환하는 '연어자전거길 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연어의 고장으로 이미지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20 설악신문
설악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50 신협

성공, 보람, 희망, 믿음,
신협에 가면 즐겁습니다.

신협에 오시면 성공 보람 희망 믿음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울때 꿈을 주는 신협.

성공을 위한 파트너, 친구같은 신협.

행복을 주는 은행 속초시민의 은행 속초신협이 있습니다.



지역사랑 속초시민의 은행

속초신협

이사장 김진태

TEL : 638-7811 / 638-7812 / 633-4008

※ 속초신협의 모든 예금은 5,000만원까지 예금 보호됩니다.



영랑동 해안 백사장 살리기

1단계, 영랑호 하구 모래 옮겨 100여m 복원

속초시 영랑동 해안을 바닷모래로 뒤덮여 옛날 모습 그대로 다시 복원하는 ‘백사장 다시 찾기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해안침식 현상으로 백사장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흉측한 TTP(삼밭이)들이 수년째 차지하고 있는 이곳 해안을 다시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이어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속초시에 따르면 영랑동 해안 백사장을 다시 복원하는 1단계 사업을 지난 17일부터 시작했다. 시는 우선 잠제 설치공사가 끝

나 바닷모래 퇴적으로 백사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영랑동 2통 해안 일대를 대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랑호 하구 입구에서 바닷모래 1만루베(15톤 트럭 1,000대분)를 영랑동 2통 해안으로 옮겨 백사장 복원작업에 나서고 있다.

시는 TTP 제작에 따른 공사부지 협소로 영랑호 하구 입구 북측 헤드랜드 공사현장에 퇴적된 바닷모래를 부득이 옮길 수밖에 없어, 이곳의 모래를 1차적으로 영랑동 2통 해안으로 옮겨 복원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영랑동 2통 해안으로 바닷모래 이동작업이 마무리 되면 100여m의 백사장이 추가로 복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중앙 헤드랜드 북쪽 해안의 잠제 설치공사가 마무리 되고, 신수로 항만공사가 추진되면 항만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10만 루베의 준설모래를 이곳으로 옮겨와 백사장 복원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99년 이곳 해안이 자



속초시가 지난 17일부터 영랑동 해안 백사장 복원사업에 들어가 덤프트럭들이 바다모래를 영랑동 2통 해안으로 옮기고 있다.

연재해지구로 지정되는 등 너울성과파도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자 영랑동 연안정비사업에 나서 지난 2008년까지 북측(길이 250m)과 중앙의 헤드랜드(390m)를 완공했다.

이어 해안으로 밀려오는 파도

위력을 완화시키는 점제 1구간(길이 100m · 폭 40m)과 2구간(길이 130m · 폭 40m) 설치공사를 지난해 10월 마무리 했으며, 현재 잠제 3구간(길이 100m · 폭 40m) 설치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고병진 기자

“농촌유학이 소규모 학교 살린다”

양양 현성초교, 고마리 작은학교생 19명 전입 분교 위기 벗어나

학생수 감소로 폐교나 분교 격화 위기를 겪던 양양지역 초등학교들이 도시학생들의 농촌유학에 힘입어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살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양양 현북면에 위치한 현성초등학교는 최근 농촌유학으로 등지를 뜬 ‘고마리 작은학교’의 학생 전입으로 분교 격화 위기를 딛고 활기를 찾고 있다.

지난해까지 17명 3학급으로 운영되던 현성초교는 이 상태로 지속될 경우, 내년에는 분교로 격화될 위기에 놓였지만, 올해 초 고마리 작은학교에서 19명이 전입



분교위기에에서 벗어난 현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야외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해 9월1일자로 전교생 36명에 5학급 편성이 최종 확정됐다. 지역

에서는 이런 추세라면 6학급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며 크게 반기

한남초교 6년만에 6학급

공수전분교장도 활기

고 있다.

특히 고마리 작은학교는 아직도 유학을 오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지낼 공간이 넉넉지 않아 수용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 학생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북지역 주민들은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어 걱정이 많았는데, 농촌에 유학을 온 아이들 덕분에 현성초교가 정상대로 운영된다 소식을 듣고는 무척 기뻐다”며 “아무래도 농촌지역에는 아이들이 재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야 사람 사는 분위기가 나는 것 같

다”고 좋아했다.

이와 함께 올해 3월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의 노력에 힘입어 6년만에 6학급이 된 서면 한남초등학교와 철쭉서너학교 어린이들의 농촌유학으로 폐교 위기를 딛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수전분교장 등 양양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농촌유학 등으로 활력을 찾고 있다.

양양 출신 김동수 장학사는 “양양지역이 열악한 환경을 딛고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모범적인 지역으로 평가받는 만큼 교사와 학생 편의 등 이에 따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소규모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 지역교육의 질적 향상이 가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주현 기자 joc69523@hanmail.net





보광장례식장

OPEN

효를 바탕으로 최고의 시설과 최상의 서비스로 유족의 슬픔을 함께하며 건전한 장례문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강원삼성병원 보광장례식장



문의 033-633-7444

프리랜서 전망대 (102)

중국 도문시와 훈춘, 용정, 그리고 백두산 탐방기<1>

훈춘 시내 곳곳 건물 신축공사...러시아와 교역 왕성

설악신문사 일행은 지난 11일부터 15일 까지 4박5일 간 훈춘 두만강신문 초청으로 훈춘, 도문, 용정, 백두산을 다녀왔다. '도문, 훈춘 방문기'에 이어 '용정, 백두산 방문기'를 2회에 걸쳐 나눠 신는다.

(편집자 주)

설악신문사 일행은 연길공항에 마중 나온 두만강신문사 관계자와 도문으로 이동해 도문촬영가협회 관계자들로부터 점심으로 냉면과 양고기, 불고기를 접대 받고 중국·북한 우호다리를 방문했다.

두만강 하류를 앞에 두고 넓게 조성된 두만강 광장에서 열린 두만강축제를 관람하고 조선족의 역사를 담은 '조선족 문화유산관'을 둘러봤다.

이어 도문촬영가협회 관계자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훈춘으로 들어와 여장을 풀었다.

3국 맞닿은 곳 방천

이튿날 길림성 8경 중 4경으로 지정된 방천, 권하다리, 연화호, 모래공원, 장고봉 전쟁유적지 등을 둘러봤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게 권하(圈河)다리다. 훈춘 권하 통상구와 북한 함북 은덕군 원정리를 잇는 두만강대교를 말한다. 차량으로 이 다리를 건너 1시간 정도 들어가면 북한 나진-선봉지구가 나온다고 한다. 북한 나진항이 동북아 물류거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바다여, 천리를 내쳐 달려 너의 품에 닿는 두만강이 부러워 뒹굴며 엎어지며 숨가쁘게 쫓아왔건만 나뭇가지에 걸린 파지 조각처럼 발목 묶인다. 모든 그리움이 바람에 휩쓸려 한편으로 나부기듯이.'

바다여, 지척인 너를 끝내 만져보지 못하여 사무치는 연모는 소금이 된다. 햇볕에 날카로운 가시철조망 늘어선 국경경비선이 아니더라도 눈가에 맺히는 이슬이 소금맛이고 입술 깨물어 삼키는 맛 또한 소금



북한과 중국 훈춘, 러시아가 맞닿아 있는 방천은 두만강이 흐르는 가운데 독특한 변경풍경을 자랑한다. 두만강 오른쪽이 북한, 왼쪽 호수가 일대가 러시아, 아래 수풀이 우거진 곳이 중국 땅이다. 멀리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철교가 보인다. <사진 전태극 전 속초민예총 지부장>

맛이다. 바다여, 저기서 시퍼렇게 돌아놓는 물결이어.'

연변작가협회 부주석인 시인 석화의 <방천에서>란 시다.

방천은 훈춘, 북한, 러시아와 인접해 독특한 변경풍경을 자랑한다. 동해바다 입구를 15km 앞에 두고 안타깝게 멈춰버린 곳이다.

오른쪽은 두만강, 왼쪽으로는 철책이 쳐져 러시아를 표시했다. 도로만 중국이다. 멀리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철교가 보인다. 김일성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할 때 이용한 철길이란다.

러·일 전쟁 당시 유물이 전시된 장고봉 전쟁유적지를 관람한 후 도로를 따라 펼쳐진 모래언덕이 시야에 들어온다. 119만㎡에 달하는 규모다.

훈춘으로 들어오는 길에 연화호가 있다. 때마침 제2회 연화호 연꽃축제가 벌어졌다.

주목할 것은 축제 개막식 광경이다.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 주민들은 버드나무 밑 음지에 서 있고, 귀빈들은 무대 앞에 도열해 사회자의 부름에 따라 한명씩 연단에 나와 인사말을 하는 풍경이다. 생태습지조성을 기념하는 기념관 개관식도 열렸다.

내리막길 걷는 북방항로

일행은 훈춘시로 돌아와 여장을 풀고 훈춘속초사무소를 방문해 고국에 안부전화를 하는 것으로 훈춘 2일차 여정을 마쳤다. 마침 9일 뉴-동춘호로 훈춘에 들어온 일행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배로 들어온 일행들의 불만이 컸다.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공해로 우회하고, 자루비노 통관시간(1인당 통과시간 8분) 지연 등으로 예정보다 서너 시간 늦게 훈춘에 도착하는 바람에 예정된 점심식사도 거르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여행 성수기임에도 뉴-동춘호의 승객이 정원의 26%밖에 차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속초시가 훈춘시와 교류하는 이유다. 훈춘은 속초를 흥망의 열쇠로 인식하는데 속초는 절실한 그 무엇이 없는 것 같다.

요즘 훈춘시내는 러시아 점포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다. 건물 신축공사가 눈에 띄게 늘어 경제의 피동기가 제대로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러시아와의 교역이 왕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훈춘속초사무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초창기 보따리상을 위한 영사업무 기능을 수행했지만, 북방항로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지금은 어떤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인근 동해시는 이스턴 드림호를 통해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한 달에 신차 2백여대를 수출하는 등 동해항을 통한 러시아행 차량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

속초시도 지난 2008년 중고차 수출기지로 부상했으나 중고차에 대한 러시아 측의 관세인상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속초항을 통한 중고자동차 수출이 고사위기에 처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러시아가 우편물 차량수입을 전면금지한데다, 얼마 전부터 러시아 무비자 시대가 열리자 이스턴 드림호의 차량 수출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동해세관 근처엔 러시아인을 위한 전용술집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보면 동해에 체류하는 러시아인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동춘호가 지난 2000년 4월에 첫 취항한 이래 올해로 10년째다. 차체에 속초시도 환동해 경제교류정책을 철저히 진단해 기존 항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항로변경을 통한 정책의 궤도 수정을 하든지 빨리 결정해야 할 때라고 본다. (다음주는 '용정, 백두산 방문기'가 이어집니다)



이수영 프리랜서 기자

이수영 프리랜서 기자



훈춘 권하 통상구와 북한 함북 은덕군 원정리를 잇는 다리. 차량으로 이 다리를 건너 1시간 정도 들어가면 북한 나진-선봉지구가 나온다. <사진 전태극 전 속초민예총 지부장>

“최고의 앨범, 최고의 음향시설로 감상해요”

황일평 UP건설 전무이사, ‘알텍 무료 음악감상실’ 주민들에 개방

속초지역 한 건설업자가 무료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화제가 되고 있다.

UP건설 전무이사인 황일평(52, 사진)씨는 이달 초 설악정형외과~석미아파트 길목에 컨테이너로 지어진 ‘알텍 무료 음악감상실’을 오픈, 음악을 좋아하는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황씨는 “사람들은 음악을 들음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음악을 통해 친밀감을 갖기도 한다”며 “음악이 주는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곳에는 ‘블루스의 왕’으로 불리는 존 리 후커의 앨범(1940년대)과 재즈 역사상 최고의 듀엣으로 손꼽히는 엘라 피츠제럴드&루이 암스트롱의 듀엣 앨범(1950년대) 등의 희귀앨범을 비롯해 이은미의 최근 앨범까지 7천여 장의 국내외 앨범이 비치돼

있다. 이중 LP 앨범은 5천여 장에 달한다.

앨범은 황씨가 사업 차 부산에서 속초로 올라오던 1985년부터 모아 온 것들이다.

황씨는 “음악을 좋아해서 한 장 두 장 사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천 장이 넘고 2천 장이 넘어가자 욕심이 생겼다”며 “옛날 앨범을 판다는 소식이 들리면 전국 어디든 앨범을 달려갔다. 한 번에 100장을 산 적도 있다”고 했다.

어렵게 구한 만큼, 앨범을 신주단지 모시듯 애지중지 다뤘다. 때문에 황씨가 소장하고 있는 옛날 앨범은 50~60년이 지난 지금도 상태나 음질이 온전한 편이다.

앨범도 앨범이지만 황씨는 음향시설에 더욱 아낌없는 투자를 했다. 1940년대 원목으로 제작된 알텍사 스피커와 고가제품으로 알려진 스투드사 CD플레이어,



황일평씨가 무료로 개방하는 음악감상실에 LP판이 빼곡하다.

토렌스사 LP플레이어 등 앨범 구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금액을 들였다. 이에 대해 황씨는 “좋은 앨범이 있어도 이를 제대로 읽어낼 음향을 갖추지 못한다면 앨범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최고의 소리를 찾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도 이

런 소리를 내는 음향시설을 본 적이 없다”고 자신했다.

황씨는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가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20년간을 매달렸다. 이제 좀 저 제품을 사다가 연결해보고 궁합이 맞지 않는다면 곧 다른 제품으로 교체했다. 자신이 원하는 음의 밸런스, 스케일, 생

동감을 찾기 위해 바꾼 음향시설만 수백여 종에 달한다. 지금의 음향시설은 3년 전인 2007년에 서야 갖추게 됐다.

황씨는 “지금의 소리가 나오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의 일치”라며 “로또에 맞은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실제로 황씨의 스피커를 통해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목젢이 침에 젖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으며, 특히 음악을 크게 틀어놔도 상대방과 대화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다. 황씨는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소리가 뇌파와 같은 음역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이유로 오픈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소리에 매료된 사람들의 발길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오픈 초기 하루 서너 명이 다녀갔지만 요즘은 하루 열 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황씨는 “집에 소장하고 있는 음반을 이곳에서 들어보게 되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했다.

이우철 기자 woodal8506@naver.com



박지현 선수가 IFBA여자스트로급 세계타이틀 7차 방어전에 성공한 뒤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지현 고성서 7차 방어 성공

여자 프로복서 스트로급 세계타이틀매치

권투 관계자들 김득구 묘소 참배

고 김득구 선수 추모 및 광복절 특집으로 고성에서 열린 여자 스트로급 세계타이틀매치에서 국내 여자 프로복서 세계 챔피언 박지현(25, 인천대풍)이 7차 방어에 성공했다.

박지현은 지난 15일 고성종합체육관에서 펼쳐진 국제여자복싱협회(IFBA) 스트로급(46.270kg) 7차 방어전(10라운드)에서 도전자인 노장 이케야마 나옴(41, 일본)을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3-0)으로 꺾었다.

지난 5월 아시아 여자 복서로는 처음으로 세계 챔피언 타이틀

전 6차 방어에 성공한 박지현은 이날 경기까지 이기면서 방어전 연승 기록을 이어갔다.

박지현의 소속사인 (주)에스랜드 관계자는 “상대 선수의 왼쪽 몸통을 효과적으로 잘 공격해 챔피언 벨트를 지킨 것 같다”며 “체력에서나 정신력에서 모두 압도한 시합이라 관중들에게도 훌륭한 경기를 선보인 것 같아 만족스럽다”고 했다.

박지현은 지난 2006년 5월 공진(중국)을 판정으로 꺾고 챔피언 벨트를 따냈다.

이날 박지현 경기에 앞서 범아

시아복싱협회(PABA) 슈퍼플라이급 챔피언 손정오(29)는 1차 방어전에서 도전자 파라조나 피달(인도네시아)에게 판정승을 거뒀다.

김택민(25)은 같은 기구의 슈퍼페더급 챔피언 결정전 상대인 요크페치 싯사이통(태국)이 전날 계체량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챔피언에 올랐다.

한편, 이날 권투대회에 앞서 지난 14일 한국권투위원회 김주환 회장과 임직원, 선수 관계자 등 50여명이 거진을 반암리 뒷산 기슭에 있는 고 김득구 선수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이용수 기자 ellan92@naver.com

KBS 전국노래자랑 고성 개최

다음달 16일...26~9월14일까지 참가 접수



KBS 전국노래자랑 홍보 이미지 사진.

KBS 전국노래자랑이 다음달 16일 고성에서 열린다.

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KBS전국노래자랑 고성군편은 제28회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9월 16~19일)를 기념하고 금강산 육로관광중단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군민의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후 1시 죽왕면 삼포리에 위치한 설악썬밸리 C.C 제1주차장에서 열리는 전국노래자랑은 지난 2003년 이후 7년만에 개최돼 그동안 숨겨왔던 장기자랑과 노래실력을 뽐내는 군민 화

합의 장이 될 예정이다.

노래자랑 참가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군청 관광문화체육과(680-3366)와 고성문화원(681-2922),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고성군민과 인근 시·군 주민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예심은 9월14일 오후1시 고성문화의 집 3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녹화되는 KBS 전국노래자랑 고성군편은 10월 24일 12시 10분에 방영될 예정이다.

이용수 기자 ellan92@naver.com

낙산사복지재단 위탁 운영 맡은 양양군노인복지관 24일 개관

노인 · 아동청소년 · 지역나눔 등 종합복지서비스 틀 갖춰

양양지역의 복지사회 구현에 헌신하고 있는 낙산사복지재단(이사장 정념스님)이 오는 24일 양양군노인복지관을 개관한다. 이로써 낙산사복지재단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완성해 가고 있다.

낙산사복지재단은 지난 2005년 설립된 이래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지종풍을 이어 받아 노인전문요양원인 낙산사 상락원을 시작으로 낙산노인복지센터(주간보호서비스), 낙산노인무료급식소, 무산지역아동센터, 의상어린이도서관 등 다양한 복지사

업을 전개하며 양양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인재육성에 나서고 있으며, 노인복지사업의 결정체인 양양군노인복지관도 위탁 운영을 맡게 됐다.

낙산사복지재단은 이사장인 정념스님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인복지사업과 아동청소년복지사업, 지역나눔사업 등 계층별, 테마별 맞춤형 복지사업을 실행

전에 옮겨 왔다.

노인복지사업은 낙산사상락원과 낙산사노인복지센터 운영과 함께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사업으로 무산지역아동센터, 의상어린이도서관, 위탁가정아동청소년 나눔사업, 장학금 지원 및 전통문화체험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나눔사업으로 낙산무료급식소 운영과 경로잔치, 경로당 후원 등을 하고 있다.

낙산사복지재단은 오는 24일 기관 · 단체장 및 노인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양군노인복지관의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양양군노인복지관(관장 무문 주지스님)은 국비 3억6,900만원 도비 2억원, 군비 31

억2,300만원 등 총사업비 36억9,200만원을 투입해 양양읍 연창리 문화복지회관 옆 7,97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1,680㎡의 규모로 지난해 6월 착공해 최근 완공했다.

주요시설은 취미교실, 경로식당, 노인프로그램실, 컴퓨터실, 체력단련 및 물리치료실, 도서실 등으로, 건강증진과 교양, 오락 등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노인들의 전용 공간으로 꾸며졌다. 양양군노인복지관은 지역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및 취미 · 여가지원 사업, 건강생활 증진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경로식당 운영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노인복지관은 인근 문화복지회관과 연결통로를 설치해 노인들의 접근성과 기존 복지시설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넓은 주차장을 조성, 기존 복지회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종합복지센터로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낙산사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의상어린이도서관이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지사회 구현 신명 바칠 것”

양양군노인복지관장 무문 주지스님

양양군노인복지관의 관장을 맡은 무문 낙산사 주지스님(사진)은 “양양군민들과 지역사회의 복지구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정념스님의 뜻을 헤아려 노인복지관의 내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무문스님은 특히 “산불의 아픔을 딛고 전 국민들의 성원과 관심으로 새롭게 복원된 국민의 사찰인 낙산사의 복지재단이 지역사회에 보답하고자 그동안 펼쳐왔던 복지사업을 이번 노인복지관 개관을 계기로 더욱 알차게 실천해 실질적인 삶의 질 향

상으로 이어지도록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낙산사와 복지재단은 앞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마음 편히 살아가 수 있는 복지사회의 완성을 위해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은 물론 지역사회에 희망을 불어넣는 소임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기원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양양송이축제 현장체험 ‘인기몰이’

외국인 100여명 신청...내국인 송이보물찾기도 마련



지난해 개최된 양양송이축제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송이산지에서 송이채취 체험행사를 하고 있다.

양양송이축제의 인기 프로그램인 양양송이 현장체험 행사가 일본인들의 신청이 쇄도하며 올해도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다.

오는 9월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양양송이축제 2010’ 행사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송이현장체험행사 접수가 지난 1일 시작된 가운데 현재 일본인 관광객 100여명이 신청하는 등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오는 9월15일부터 10월1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송이 현장체험행사는 ‘외국인 송이현장채취체험’과 송이축제기간 중 진행되는 ‘내국인 송이보물찾기 체험’ 행사로 구분돼 프로그램의 내실을 더했다.

외국인 대상 송이 현장채취체험은 송이산지에서 직접 송이를 채취하고 송이로 만든 송이주와 송이요리를 시식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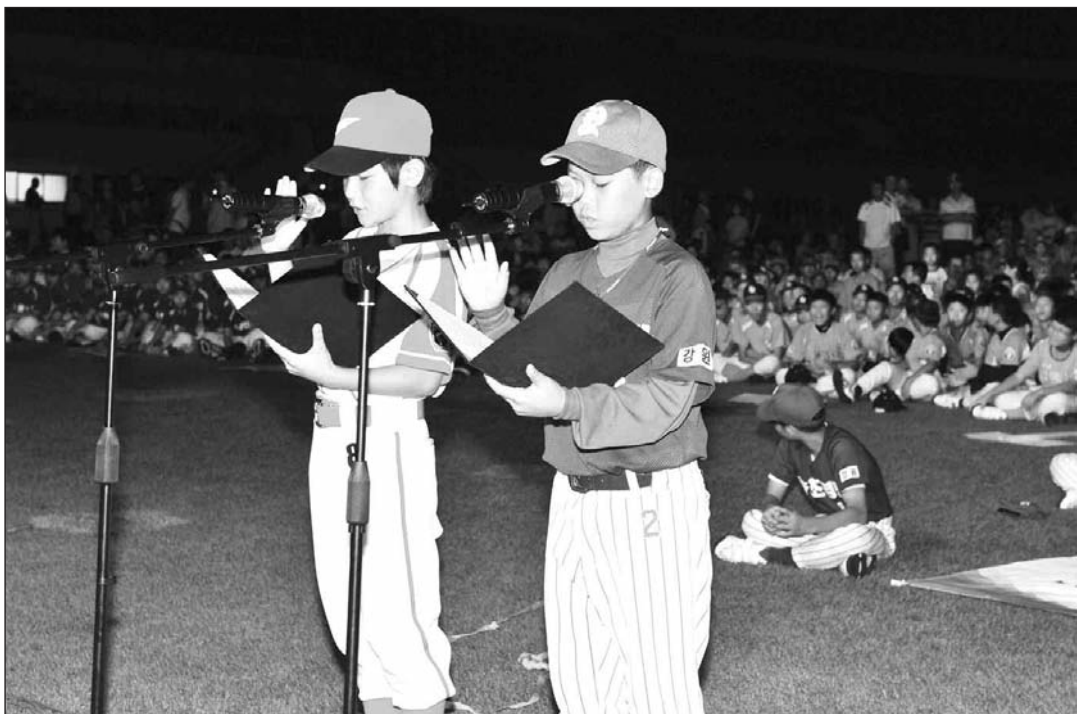
기회가 주어진다. 10월14일까지 전화 접수만 받는다.

내국인 송이보물찾기체험행사는 송이가 나는 숲에 체험장을 조성, 소나무 밑에 미리 숨겨둔 황금송이를 보물찾기 하듯이 한 쪽씩 찾아 가져갈 수 있고, 송이주와 송이호박 볶음 요리를 시식할 수 있다. 인근에 마련된 송이숲 밤줍기 체험장에서는 무료로 자연산 밤을 줍는 이벤트도 열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9월28일까지 접수.

군 관계자는 “양양송이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송이현장채취체험행사에 많은 참여를 바라고 올해 송이축제가 풍성한 가을의 전령이 되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양양송이축제는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축제평가에서 최우수와 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지난해 신종플루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40여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 명품축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2010 스포츠토토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가 지난 16일 개막한 가운데 초등부와 리틀부 대표선수들이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속초, 유소년야구팀에 점령!

스포츠토토배 전국 유소년야구대회 207개팀 참가

한국 야구의 미래를 짊어질 유소년 야구축제 2010 스포츠토토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지난 16일 속초시종합경기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속초시와 한국야구협회(KBO)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26일까지 속초설악야구장과 설악고 야구장 등 6개 야구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를 위해 전국의 207개 유소년 야구팀의 선수 및 임원, 가족 등 8500여명이 속초를 찾았으며, 지난해에 이어 재미교포와 미국인으로 구성된 미국

LA 리틀야구팀도 참가했다.

16일 오후 6시 30분에 열린 전야제 및 개회식에는 한영관 한국리틀야구연맹 회장을 비롯해 김인식 전 국가대표 야구팀 감독, 채용생 속초시장, 최영수 속초시

26일까지 6개구장서 열전

야구협회장, 이한수 속초시리틀야구단장 등이 참석, 야구 꿈나무들을 격려했다.

개그맨 지상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특공무술, 연예인 축하공연, 댄스경연,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이벤트들이 진행됐다.

한편 지난해 대회에서는 초등부 관산초교(동해), 수창초교(서해), 화정초교(백두), 신곡초교(한라)가 각각 리그 우승을, 리틀부에서는 용산구(메이저A), 동래구(메이저B), 미국선발 리틀야구단(체리)이 우승을 거머쥐었다.

리그 우승팀끼리 펼치는 왕중왕전에서는 안산 관산초교가 초등부 우승을 차지했고, 메이저리그에서는 용산구 리틀야구단이 체리리그에서는 미국선발 리틀야구단이 정상에 올랐다.

이우철 기자 woodda18506@naver.com

영랑호변서 마상무예 기량 겨뤄

제6회 국제기사대회 열려...10개국 100여명 참가

세계기사연맹이 주최하고 (사)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가 주관한 제6회 국제기사대회가 지난 13~16일 영랑 화랑의 정신이 깃든 화랑도체험단지 일대에서 개최됐다.

전통 마상무예의 전승 및 대중화를 위해 매년 속초에서 개최되고 있는 이번 대회는 '인류는 하나로'라는 주제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이란, 폴란드, 몽골, 터키 등 세계 10개국 1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대회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복원된 단사, 속사, 연속사 등의 마상무예 기본 종목은 비롯해 싸리나무와 동물가죽으로 만들어진 공을 앞선 기수가 말을 타고 끝면 뒤에서 말을 탄 기사가 활을 쏘아 맞추는 모구경기, 말을

타고 장시라는 채를 이용해 공을 쳐서 상대방 문에 넣는 마상격구(시범경기) 등의 변형 경기가 함께 진행됐다.

대회 주관측인 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는 우리나라의 전통 마상무예를 전승하는 단체로, 모구를 국제경기화해 유럽선수권대회 주 종목으로 진입시켰으며, 마상무예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14일 오전에 열린 개회식에서는 60여명의 무사들이 연출하는 어가행렬을 비롯해 마상요도, 기창, 협도 등의 마상무예 시연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번 대회 참가를 위해 12일 입국한 외국 선수단은 18일까지 속초에 머물면서 속초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우철 기자



지난 13~16일 화랑도체험단지에서 개최된 제6회 국제기사대회에서 외국인 선수가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봉사와 나눔, 사랑 그리고 감사 이 네 단어를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은 사회적 최고 인격자다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랑의 장학회

(재) 속초검찰한마음 장학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 장차 국가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로 성장시킨다는 목적으로 1992년 10월 자본금 5,300만원을 모금하여 법무부 산하 전국 최초의 장학재단으로 설립된 저희 장학회는 그동안 법무부 산하단체 위원 등 재단관계자들과 뜻있는 지역주민들의 정성어린 장학기금 출연으로 8억여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그 이자소득으로 영북지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5명의 학생들에게 총 3,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 했으며 현재까지 총 900여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3억 6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금증자를 통하여 더 많은 청소년들이 미래의 희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장 이규철

기탁자 명단

문창환, 이규철, 최평규, 정훈봉, 이흥만, 조동룡, 김주섭, 이동화, 전봉환, 김중애, 최근석, 김이곤, 정성웅, 서울 한의사 협회, 김도중, 김도교, 윤응주, 한승상·오재춘, 임창수, 이창석, 조오현, 신동만, 유재학, 공창희, 송훈석, 임채진, 안종택, 김종인, 박한철, 김현웅, 박상옥, 한희원, 허익범, 서우정, 최교일, 황인정, 정점식, 박용호, 조상철, 김광식, 김인철, 정미경, 신선익, 주영준, 유형진, 심석건, 정재환, 임주현, 김봉수, 박호식, 이혜원, 이종숙, 김재기, 신일순, 김 중태, 강희용, 이호, 최순화, 정병옥, 김재익, 채용생, 이영우, 윤 창열, 권봉희, 한기중, 김유자, 조용남, 최준집, 윤태형, 유다환, 김점문, 김충호, 최종열, 권태호, 송제일, 조순구, 이정복, 이동진, 성봉경, 김상기, 동문성, 오인택, 김윤철, 홍병철, 하창욱, 김명동, 김원영, 심우석, 민태식, 홍현일, 김현창, 윤장원, 맹성 호, 허정도, 정복동, 김재하, 김영삼, 이은옥, 김완식, 김양식, 송태검, 김삼노, 전명환, 함하민, 박 영춘, 정용화, 박건호, 김일수, 김춘권, 박용길, 김기명, 김수하, 윤홍, 한전일, 정봉수, 김한식, 홍 철수, 최재섭, 박용길, 주인식, 최준형, 박창서, 이관희, 문병현, 박학식, 박동서, 장치영, 노성익, 마중국, 김봉자, 김미옥, 이 규복, 김강평, 이규창, 정정섭, 최치운, 최지용, 홍용출, 이태현, 김두희, 최홍영, 박창수, 김종수, 박병춘, 최원규, 김만두, 최봉영, 정봉영, 이만식, 오도웅, 남궁인식, 김해성, 장기환, 이준영, 정창화, 이영구, 최성규, 장용수, 강근우, 엄동일, 이상국, 김호 열, 이근천, 임명식, 최익수, 이영권, 조일호, 조수웅, 성동환, 박재산, 구지열, 이재희, 김 창 천, 김중구외직원일동, 최익수, 김상우, 박상형, 박필용, 전용우, 이기우, 이상준, 임용식, 김연길, 최중화, 이진형, 황만 식, 김봉성, 이명숙(양양), 최귀희, 최순덕, 최준란, 김춘길, 강성숙, 정 병주, 이재운, 장영철, 김애리, 이영순, 허선옥, 현순희, 이명숙, 권순조, 이항욱, 최미순, 전금주, 장현영, 최병규, 신승물, 이상원, 최용희, 김학춘, 이정인, 김조현, 김진, 황종국, 하창조, 서성복, 정문식, 이재 민, 유춘배, 전덕용, 김상태, 민영기, 홍대성, 최은주, 최광규, 정광복, 문원길, 유춘배, 진맹규, 유종호, 김영도, 김동집, 도한섭, 김광규, 범죄예방고성지구, 범죄예방양양지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부탁드립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들과 고향을 사랑하는 출향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재단법인 속초검찰 한마음장학회

○ 후원계좌 : 동명새마을금고 : 4249-09-003445-5
○ 문의 : 033)631-0050

고성 수성문화제 9월 16일 팡파르

3일간 전통문화행사 풍성...세조어가 건봉사 행차 재현

체육대회 폐지 민속경기 확대

제28회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가 오는 9월 16일부터 3일간 고성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향토축제로 치러진다.

신종플루 확산으로 지난해 수성제례만 치러졌던 수성문화제는 올해 기존의 체육행사 이미지를 탈피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대폭 확대해 향토문화의 맥을 잇는 축제로 거듭난다.

특히, 개회식에 앞서 열리는 가랑벌에는 조선시대 세조가 금강산 건봉사에 행차해 5일간 머

문 역사적 사료를 근거로 세조가 건봉사 행차 행렬을 재현해 축제 의미를 더한다.

추석을 앞두고 열리는 올해 수성문화제 첫날인 16일 전야제는 오전 10시 수성제단에서 황종국 고성군수가 초헌관으로 참례하는 수성제례를 시작으로 막이 오르고, 수성 가요제를 대신해 'KBS 전국노래자랑'이 오후 1시부터 열려 축제의 흥을 북돋운다.

이어 저녁 6시30분부터 축제가행진이 진행되고 이어 화려한 불꽃놀이가 강선 밤하늘을 수놓는다.

본행사인 17일에는 오전 9시부터 간성시가지에서 읍·면별 가랑벌 및 세조어가 건봉사 행차 행렬이 진행되며, 오전 10시 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을 열어 고성군민상 시상과 통일염원 풍선 날리기 등을 갖는다.

식후행사로 신혜숙 댄스 프로젝트의 무대공연과 함께 시조경창 및 전통혼례 재현, 명석·가마니·삼태기 짜기 등의 민속시연이 이어져 주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날 저녁 6시 폐막식 후 축하공연과 국방홍보원이 주관하는 위문열차 특집공연, 불꽃놀이가 이어져 행사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올해 수성문화제는 기존 읍·면 대항의 체육대회가 폐지되고 대신 군장병 지역사랑 가마전, 어린이 굴렁쇠 굴리기, 그물짜기, 씨름대회, 물동이 이고 이어달리기 등 민속경기가 확대 진행된다.

또 수성문화제 기간동안 투호와 전통연 제작체험, 떡만들기, 전통다도, 솟대만들기, 어패류 탁본 등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행사장 인근에서는 풍물장터가 열려 별미도 제공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고성 8미 맛자랑'으로 감칠맛 나는 지역 음식들이 선보이고, 농협에서는 쌀소비 촉진을 위한 오대미쌀 시식회를 준비해 놓고 있다.



지난 2008년에 열린 수성문화제 가장 행렬 모습.

이용수 기자 ellan92@naver.com



전태극씨 훈춘서 사진집 출판회

'전태극 훈춘 소묘 사진집 출판회 겸 작품전'이 지난 11일 오후 5시 훈춘 월용만 소구에서 강영문 훈춘시 양식국 국장과 훈춘촬영가협회 회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전태극씨는 지난 10년 동안 총 20회 훈춘을 드나들며 기록한 1천여점의 사진 중 엄선한 사진만을 추려 <훈춘이야기>란 도록을 만들었다.

이수영 프리랜서 기자

학생들 지역문화재 지킴이로

양양군, 9월에 학교와 협약 체결

양양군이 지역에 산재한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보전하기 위해 학생들이 참여하는 문화재 지킴이 운동을 추진한다.

군은 초·중고생들의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1사1문화재 지킴이 운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1사1문화재 지킴이 운동'은 강원도가 숭례문 방화사건을 계기로 시작한 민관 협력차원의 문화재 지킴이 운동으로, 단체 및 기업체가 문화재와 협약을 체결하고 보존관리를 책임지는 운동이다.

현재 양양군에는 국보, 보물,

명승, 사적 등 32개 문화재가 있으며, 3개 단체가 14개 문화재와 협약을 체결,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은 이달 말까지 각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9월에 학교와 문화재간 협약을 개최하고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군은 1사1문화재 지킴이 운동 우수학교 및 지도교사를 선정,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활동 사진·그림·표어 공모전과 백일장 등을 개최해 분야별로 시상할 계획이다. 또 중고생의 경우 문화재보호 지킴이 활동에 참여한 시간에 대해 자원봉사시간으로 인정해줄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홍보대사-남희석



속초·고성·양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고
피해자와 함께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 속초·고성·양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 어느날 갑자기 범죄(살인, 강도, 폭행, 성폭행, 상해, 방화 등)로부터 피해를 당해 고통 받는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피해회복과 슬픔을 함께 치유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센터에서 하는 일**
○ 상담지원: 전화·면접·방문(출장)·우편·인터넷상담
○ 의료지원: 병원안내 및 동행,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 의료비지원
○ 법률지원: 정보제공·수사기관법정동행
○ 경제적지원: 범죄피해로 인한 생계고난자·경제적지원·학자금지원·취업알선

*** 센터이용안내**
○ 이용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09:00~18:00)
○ 이용방법: 방문, 전화, 우편, 이메일
○ 이용대상지역: 속초·고성·양양지역 거주자
○ 이용대상자: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 친족, 범죄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사람

*** 센터이용방법**
○ 센터위치: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280-2, 속초지청정문 앞 동명빌딩 2층
○ 연락처(전화): 033-638-1111
○ 팩스: 033-638-1114
○ 이메일주소: sokb2007@hanmail.net
○ 홈페이지: WWW.sokb.kr



사) 속초·고성·양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운기에 희망의 도시락 싣고”

양양읍 연창리 노인들, 방학 중 어려운 아이들에게 배달

낙산사복지재단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비록 몸은 늙었지만 지역을 위해 봉사하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

양양읍 연창리 노인들은 대부분 70대를 넘긴 고령에도 불구하고 낙산사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어려운 아동들을 위한 도시락배달에 나서며 제2의 청춘을 되찾고 있다.

올 1월부터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 김훈각 할아버지(73)를 비롯한 11명의 노인들은 여름방학 중인 요즘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운기를 타고 손주 같은 아동들의 점심 도시락 배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집에서 자식들로부터 수발을 받아야 할 고령이지만 연창리 노인들은 소일거리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도 하며 매달 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 행복감으로 가득하다.

매일 오전 10시 마을회관 앞에서 도시락을 전해 받는 김훈각 할아버지는 “우리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보람되고 행복하다”며 “이렇게 매일 일을 하니까 몸은 노쇠했지만 마음만은 청춘이 된 것 같다”고 좋아했다.

한 달에 고작 20만을 손에 쥐지만 어르신들에게 직접 일을 해 번 수입은 200만원 못지않게 쓰임새가 많다. 손주들에게 용돈도 쥐어주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약도 사먹는데 요긴하게 쓴다.



김훈각 할아버지가 마을 노인들과 함께 경운기로 도시락 배달에 나서고 있다.

고령으로 더운 날씨에는 도시락 배달이 힘들기도 하지만 노인들은 일을 한다는 자책만으로도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연창리를 비롯해 구교리, 성내리, 군행리 등 많은

지역을 찾아 아이들에게 희망의 도시락을 건넨다.

단체 유니폼에 모자도 맞춰 쓴 노인들은 “우리 같은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낙산사에 감사하고 앞으로 1년 내내 일거리가 있었으면 더 바랄 게 없다”며 “노인들이 일을 하면 치매도 예방하고 근력도 생겨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시락 배달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김훈각 할아버지는 “매일 나가서 일할 수 있어 젊은이들 부럽지 않을 때가 많고 도시락을 배달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해 일도 하고 보탬도 될 수 있도록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미소를 지었다.

김 할아버지를 비롯한 연창리 노인들은 숨이 막힐 정도로 무더운 한낮 땀별에도 매일 목을 내밀고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을 떠올리며 흐뭇한 마음으로 오늘도 경운기에 도시락을 싣고 배달에 나선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제6기 청소년 복지학교 수강생 모집

★모집인원 : 40명(제6기)
★모집대상 : 관내 중,고등학생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482-5 사회복지회관 3층
★전 화 : 033)633-1363
★홈페이지 : <http://happysokcho.com>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학교안가는 토요일) 프로그램 실시
봉사시간 부여함.
봉사에 관심 있는 청소년은 지금바로신청하세요^^

청소년복지학교 수료식 안내

일 시 : 2010년 8월 28일(토), 오전11시
장 소 : 사회복지회관2층(천일안경원 뒤)
수료대상 : 청소년복지학교 5기 수강생(24명)
많이 오셔서 축하해주세요~

사회복지법인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글라스박스 안경

봄맞이 여행 가실때 보호용 선글라스를
꼭 착용하시고 즐거운 여행 다녀오십시오

선글라스 20% SALE

유리상자

패션북에 5000원 부터
전품목 정찰제 판매!!

속초시 중앙동 속초우체국 옆 건물 뒤 주차장 완비 ☎ 033)636-3232

대표 박형근(안경사) 속초고 49회
GLASSBOX

“고향 고성, 블루베리 고장 됐으면...”

간성 해상리 (주)대농 이종영 대표...올해 6톤 생산 고소득 올려

자비 털어 건봉블루베리축제 개최

고향 고성에서 블루베리로 부농의 꿈과 함께 녹색관광 농업을 실현해가고 있는 군 장교 출신의 귀농인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건봉사 가는 길목인 간성 해상리에서 고품질 블루베리를 생산하고 있는 (주)대농 이종영 대표(55, 사진).

그는 올해 7,000㎡ 부지에 심은 약 2,000주의 묘목에서 친환경 우수 블루베리 6톤을 생산, 5톤을 판매(1kg당 3만원)해 1억 2,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나머지 1톤은 냉동 보관해 놓은 상태로 겨울에 판매할 경우, 1kg당 7만원까지 올라 매출액은 더 증가할 예정이다.

첫 수확을 시작한 지난해는 약 3톤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배를 수확해 고소득을 올리며 그동안의 땀방울에 대한 결실을 맺었다.

“블루베리는 3년차부터 수확이 가능하지만, 지역의 기후환경에 맞는 튼실한 묘목 생산을 위해 5년차까지 관리한 것이 올해 초 냉해도 이겨내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육군3사관학교 출신으로 군 생활로 전국을 돌다 32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중령으로 예편한 뒤, 지난 2003년 고향 간성읍 해상리에 정착해 블루베리 농사를 시작했다.

현재 전국 블루베리협회 상임

고문을 맡고 있는 형 이삼용씨(55)와 함께 캐나다에서 묘목을 직수입해 시작한 블루베리 농사는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블루베리를 심은 첫째 냉해로 묘목의 30%가 채 살아남지 못했다. 추위와 많은 눈, 바람을 견디지 못한 묘목을 다른 곳에 옮겨 심었지만 허사였다.

수확보다는 지역에 맞는 튼실한 묘목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한 그는 자연 거름과 12시간씩 물을 주고, 수확도 하지 않고 뿌리만 키운 결과, 2006년 블루베리 재배에 성공했다.

올해 봄까지 지속된 추위로 전국 대부분의 블루베리 농가가 냉해 피해를 입었지만, 이런 역경을 견딘 이종영씨는 더욱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

그가 재배하는 블루베리는 동해의 해풍과 건봉산의 강한 바람을 이겨낸 제품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씻지도 않고 즉석에서 바로 먹을 수 있어 올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유기농 인증마크까지 획득했다.

올해 수확이 본격화되자 그는 블루베리의 소비 확산과 홍보를 위해 지난 7월 자비를 털어 건봉 블루베리축제를 열어 블루베리 생과일을 비롯해 아이스 블루베리, 블루베리로 만든 잼·막걸리·떡 등의 무료시식과 함께 건



봉사에서 산사음악회를 가졌다.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건강과일로 선정될 정도로 유명한 과일입니다. 고향인 고성에서 블루베리 생산지로 각광받는 고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는 블루베리가 단순히 소득만을 올려주는 수단인 아닌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건강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과일이 돼 주길 바란다.

현재 그는 건봉사 노인요양원 인근 7,000㎡ 면적에 ‘건봉블루베리 농원’을 조성하고 있다. 여기에 블루베리 묘목 2,000주를 심어 웰빙쉼터로 조성하고 수확 체험과 함께 관광객 1인1묘목 갖기 사업, 건봉사와 연계한 블루베리 산사체험 등을 열 계획이다.

이용수 기자 ellan92@naver.com

“소외받는 이웃 없도록 노력”

사회복지직 첫 사무관 이정근 동명동장 직무대리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는 지팡이 같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사회복지직렬에서 첫 사무관이 배출됐다. 지난 13일 속초시 인사에서 승진 발령된 이정근(52, 사진) 동명동장 직무대리가 그 주인공.

1977년 행정직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 동장은 7년간 휴직한 뒤 84년 복귀했다. 당시 사회복지업무에 배정된 이 동장은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2002년 사회복지직렬로 변경됐다. 이후 주민생활지원실 기획조정담당, 교동 주민생활지원담당을 거쳐 이번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됐다.

이 동장은 “속초시 사회복지직렬 첫 사무관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그 동안의 업무 경험을 살려 그늘지고 소외받는 이웃들이 없도록 열심히 뛰라는 의미로 알고 더욱 노력하겠다”며 “사회복지직렬을 배려해준 속초시에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속초시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은 33명으로 행정직렬 다음으로 많다.

이우철 기자



안전한 지역 만들기 구슬땀

이상호 양양군 재난관리담당...체계적 대응책 구축

양양군청 건설방재과 이상호 재난관리담당(46, 사진)이 각종 재난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헌신하고 있다.

이 담당의 이런 노력에 힘입어 양양군은 지난 7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한국훈전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태풍과 산불 등 수많은 재난재해를 겪어온 양양군은 이 담당 등 담당 공무원들의 땀과 체계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 구축에 힘입어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 1월부터 재난관리 업무를 맡은 이 담당은 특히 양양읍사무소와 현북면사무소, 손양면사무

소 등 현장 근무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살려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최근 양양군이 재난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가도록 디딤돌 역할을 했으며, 양양소방서 설립에도 앞장 서는 등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지역과 주민들을 지키는데 헌신하고 있다.

이 담당은 “재난 재해의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과 훈련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24시간 영업

설악불한증막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지켜 줍니다!

새롭게 단장한 설악불한증막은 천연의 향기 소나무와 동해바다 해수 그리고 약쭉만을 사용하는 전통 재래식 한증막입니다.



약쭉



소나무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26(물치 육교 농협 뒤) | TEL : 033)671-8852, 672-4285 | www.firesauna.com

24년 전통의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유림퍼니처

<http://urimfurniture.koreasme.com>

사무용 OA가구, 싱크대, 불박이장, 소파, 신발장 및 주문제작가구는 24년의
축적된 기술과 10여명의 고급기술자를 보유한 유림퍼니처 공장에서 직접제작판매



조달청/중소기업중앙회인증 사무용가구 직접생산확인업체, 대포농공단지내에 최신기계설치 및 공장등록완료
유림퍼니처는 검증된 제조업체로서 24년의 전통과 기술력으로 설악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history

- 2009 속초시 대포농공단지내에 공장이전 및 최신기계설비 구축과 공장등록 완료
- 2007 조달청/중소기업중앙회인증 사무용가구, 주방가구 직접생산확인업체등록
- 2007 유림퍼니처로 상호변경 후 관공서/공기업 사무용가구 직접생산납품에 주력
- 2002 강원도가구협동조합 가입 및 일반가구, 주방가구, 사무용가구의 전문생산공장 으로 생산라인 구축
- 1996 유림가구로 상호변경 후 속초시 영랑동 188-1번지에 가구제작 공장 설립
- 1990 유림소파로 상호 변경 후 영동지역에서 최초로 쇼파제작 전문공장 설립
- 1986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92-1번지에 영랑 의자수리센터

본사 및 제1공장(영랑동)



농공단지 제2공장(대포동)



TEL : (033) 631-3189, 632-3640, FAX : (033) 637-3189
E-MAIL : yej602@naver.com

속초, 문화로 거닐다 ㉗ 양숙희무용단

대중을 꺼안은 전통의 춤사위

무용은 낯설고 어려운 예술이다. '전통과 고전'을 수식처럼 안고 가야하는 한국무용은 더욱 그렇다. 현대무용의 자유분방함이나 연극적 퍼포먼스의 화려함이 없기 때문이다. 의상과 음악의 형식적 제한도 대중과의 소통을 가로 막는 요소이다.

그래도 한국무용은 특유의 미학적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 어둡 속에 번뜩이는 고유한 움직임, 원과 곡선으로 표현되는 전통의 춤사위, 소박한 자연미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신명나게 표현하는 몸짓은 격동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한국무용 쉽고 재미있게 풀어

이러한 전통의 춤사위를 오랜 시간 속초에 뿌리내려온 단체가 '양숙희 무용단'이다. 이들이 처음 무용단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밖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9년. 그동안 학원 운영을 통해 제자들을 양성한 양숙희 대표가 제자들과 함께 성남시에서

'강원·경기출판' 공연을 하면서부터다. 같은 해 제2회 강원무용제에 제자 8명과 참가하여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날 공연 이후 자연스레 양숙희 무용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크고 작은 공연을 펼쳐왔다.

양숙희 무용단이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한 시기는 2006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 순회공연을 시작으로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공연, 러시아 청소년 한국문화체험을 하였다. 단순히 공연의 양적인 측면만 확대한 것이 아니라 내용도 변화를 이끌었다.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한국무용을 일반인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관람하기를 바라는 고민을 작품에서 풀어보았다. 그 결과가 해금실내악단 '이현의 농'과 함께 하는 공연이다. 속초와 양양 문화회관에서 공연한 이 작품은 해금의 애절한 가락과 양숙희 무용단의 아름다운 춤사위가 조화를 이뤄 무용공연의 대중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작품은



양숙희 무용단 공연 모습.

양숙희 무용단의 레파토리가 되어 지난해까지 정기공연마다 무대에 올랐을 정도로 사랑을 받은 작품이 되었다.

해금라이브와 한국무용의 만남에 이어 2007년에는 '직녀, 사랑을 만나다'라는 작품을 발표했다. 판권댄스와 한국무용을 건우

직녀 이야기로 표현한 작품으로 전통과 현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신선한 무대미학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양숙희 단장은 전통의 맥을 이으면서도 대중의 관심을 고전무용으로 옮겨오기 위한 기획이라고 전한다. 이밖에 설악의 아름다운 4계를 무용으로

표현한 '설악의 향기', 여성의 삶을 자연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현대무용 '두 여자 이야기'도 정기 공연을 통해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다.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도

정기발표회를 통한 대중화 시도와 함께 문화예술교육도 하기 시작한다. 2006년 반야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구춤과 한국무용을 가르친 것. 일반인도 하기 힘든 무용을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일은 힘겨운 경험이었다. 매번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했고, 진도는 좀처럼 나가지 않았다. 그래도 어르신들의 진지한 참여는 문화예술교육이 줄 수 있는 작은 기쁨이었다. 올해는 고성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있다. 여전히 힘들지만 기회가 닿는다면 무용을 통한 문화체험의 기쁨을 전해줄 생각이다.

아쉽게도 올해는 양숙희 무용단의 창작발표회를 속초에서 만날 수 없다. 다만, 고성문화의 집에서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무대 사정으로 다소 축소된 공연이 될 테지만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제자들이 한달음에 달려와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위한 춤사위를 펼칠 예정이라고 한다.

김인섭 시민기자

3시간 달려 영화와 음악에 빠지다

진정한 뮤지션의 저력과 만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올 여름도 곳곳에서 많은 축제가 열렸다. 지난 11일부터 4일간 속초지역에서 열린 '대한민국음악대향연'을 비롯해 낙산해수욕장의 '2010 서머 워크앤티', '고성화진포 국제 평화 락 페스티벌'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축제가 열렸다.

문화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는 피해의식과 좋은 공연이나 전시회, 축제 등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절박감에 몇 년 동안 버르던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열리는 충북 제천으로 떠났다.

8월 14일 토요일, 제4호 태풍 '헨무'가 무사히 빠져나갔다고는 하지만, 잔뜩 찌푸린 하늘에 비까지 내렸다. 제천시 역시 비가 온다고 해서 계속 갈등하다 관람 티켓 예매도 하지 않고 출발했다.

3시간 남짓 걸려 저녁 6시가 넘어 도착하니 다행히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티켓이 모두 매진되어서 1시간 이상 기다린 끝에 현장

판매 티켓을 구입해서 가까스로 8시 상영영화인 '플라잉 버터플라이(Flying Butterfly)'를 볼 수 있었다. 데뷔 15년을 맞은 YB(윤도현 밴드)가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에서 열리는 대형 록페스티벌인 밴스 위프드 투어 무대에 올라 공연하는 과정과 미국 동부에 사는 이민 2세 소녀가 그 공연을 보기 위해 방학을 이용해 여행하고 결국 그들의 공연을 보게 되는 과정을 담은 로드무비 형태의 다큐멘터리 영화다.

한국에선 많은 팬들을 확보하

이문세 공연에 "아이돌 보다 훨씬 나은걸..."

고 있는 메이저밴드인 그들이 신예밴드 등용문인 케빈세즈 스테이지에서의 20여 분의 공연을 위해서 10여 시간을 이동하고 자신의 밴드와 음악을 홍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결코 적지 않은 나이의 그들을 보며 그 열정



이문세 라이브 공연 모습.

과 몰입이 부러왔다.

영화가 끝나자 이문세의 공연이 열렸다. 과연, 이문세였다!! 빅뱅의 '붉은 노을' 때문에 이문세라는 가수를 알게 된 중 3인 딸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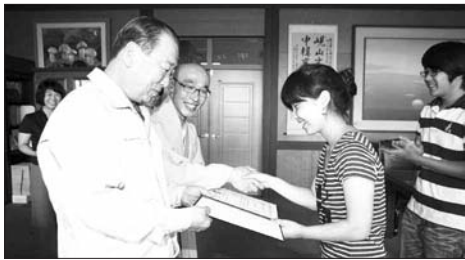
이가 하는 말, "아이돌 보다 훨씬 나은걸..." 그 이유를 물어보니 "2시간 가까이 자신의 히트곡들로만 공연하는 것도 그렇고 꽃미남도 아니면서 수 천 명의 관객들을 광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파워에 놀람"이라고 정리한다.

음악으로 보다는 예능프로를 위해 기획된 듯한 수많은 걸그룹과 남자아이돌이 넘쳐나는 요즘, 딸아이가 엔터테이너가 아닌 진정한 뮤지션이 무언지, 그들의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었으면 한다.

'물 만난 영화, 바람난 음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올해 6회를 맞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청풍호반무대와 수상아트홀, 제천시 일원에서 26개국 84편의 영화상영 및 30여회의 음악공연으로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열렸다.

김송아 시민기자

낙산사복지재단 장학금 전달



낙산사복지재단은 지난 17일 이진호 양양군수 집무실에서 인재육성 우수학생으로 선발된 고려대학교 김하늘 학생을 비롯한 4명의 대학생들에게 하반기 장학금 100만원씩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6·25전쟁사진 400점 전시



고성군재향군인회(회장 이행관)는 2010 을지연습 실시 기간인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고성군청 본관에 6.25전쟁의 참혹상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담은 사진 400점을 전시했다.

이웅수 기자 ellan92@naver.com

중등교사 다문화 직무연수



경동대학교(총장 신동진) 부설 중등교육연수원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30시간에 걸쳐 강원도 중등교사 4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웅수 기자

생물다양성 체험 캠프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16일~18일까지 설악동 야영장 및 소공원 일대에서 소외계층 청소년 50여명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체험 캠프를 운영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농어촌공사, 잡초 제거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지사장 김중규)는 지난 19일 설악산 자락에 위치한 설악저수지에서 지역 농업인들과 함께 제방(제방) 잡초제거 및 자생풀 축산농가 지원활동을 가졌다. 농어촌공사는 이날 제거한 잡초를 인근 축산농가에 사료로 제공했다.

이우철 기자 wooddal8506@naver.com

독일 교사 초청, '발도르프교육'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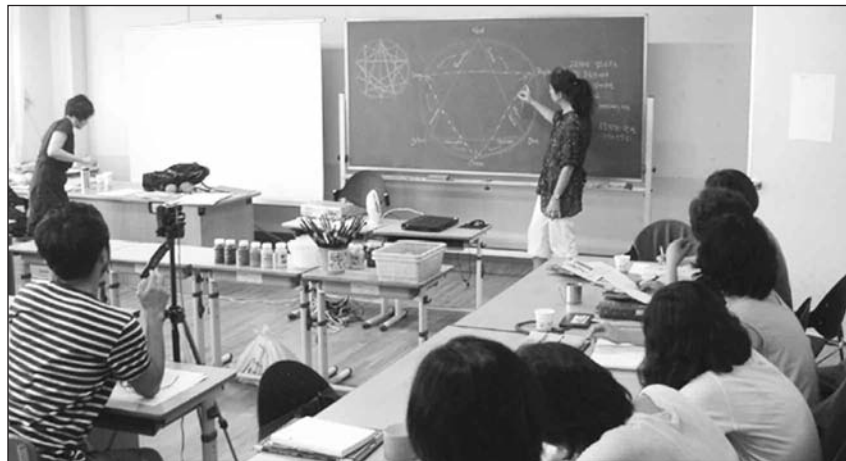
속초양양지역 발도르프교사연구회, "한국 문화 맞게 적용"

21세기 교육개혁 모델로 제시된 '독일 발도르프교육'에 대한 연수과정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마련돼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속초양양지역 발도르프교사연구회는 독일 함부르크 발도르프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담당하는 에르드무테 교사를 강사로 초빙, 지난 16~20일 속초청대초교에서 발도르프교육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속초양양지역 초등학교사 35명은 발도르프교육의 개념과 세계의 교육 흐름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 발도르프학교의 현황 및 슈타이너의 교육사상 접근, 학생들의 인지력과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 방식 체험, 가정에서의 발도르프교육 지원 방법 등에 대해 강의를 듣고 토론했다.

발도르프교육은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가 '사회공정성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1919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설립한 발도르프학교에서 출발, △유급·낙제 없는 학교교육 △모든 수업의 예술화 △발달에 맞춰진 교과과정 △남녀공학 △에포크수업(1학년부부터 이어지는 2개



독일 발도르프학교 에르드무테 교사가 발도르프교육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의 외국어교육) △상세한 보고서식에 따른 과제결과물 등을 특징으로 한다. 199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44차 세계교육장관회의에서 21세기 개혁교육의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다.

에르드무테 교사는 강평에서 "발도르프교육과정을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의 생활방식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다"며 "교사들이 발도르프교육에 대한 확신과 용

기, 진취적인 마음이 있는 한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용근 속초양양교육청 장학사는 "교육청 차원에서 발도르프 교육을 소개하는 연수를 가진 적은 있지만, 교사 연구모임에서 개최한 것은 처음"이라며 "발도르프교육의 실천가능성과 혁신학교에서의 발도르프교육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생각하는 시간이 됐다"고 했다.

이우철 기자

6·25 한국전쟁 교양강좌 열어

양양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프로그램



양양문화원이 운영하는 어르신문화학교에 참석한 6·25 음식체험을 하고 있다.

양양문화원(원장 양동창)이 어르신문화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6·25 한국전쟁에 관한 교양강좌를 열었다.

문화원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일출예식장 1층에서 황재희 강릉영동대 조리학과 교수를 초청해 어르신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강좌는 1945~1954년까지의 양양지역 관련 전쟁자료를 설명하고 6·25 한국전쟁과 38선 해설을 위한 스피치교육, 38선길 현지 견기 체험, 내가 겪은 6·25(전쟁발발 및 피난민생활상)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6·25 당시의 이야기와 주민들이 먹던 마을단위 음식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회상에 젖기도 했다. 한편 양양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는 지난 5월 개강해 오는 11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김주현 기자

영어교사 워크숍 · 홈커밍데이

강원외국어교육원, 장기심화 영어교사 대상

강원외국어교육원(원장 유진규)은 지난 16일 연수관 대강당에서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실수업 개선'이라는 주제로 장기 심화연수생 워크숍 및 홈커밍데이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영어교사 장기 심화연수 6개월 과정을 이수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특히 이날 워크숍은 그동안 강원외국어교육원이 배출한 장기 심화연수생들의 홈커밍데이 행사도 함께 열려 축제분

위기 속에 진행됐다. EBS 인기 강사인 썬김도 초청돼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영어학습 방법에 대해 특강을 실시해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원성용 연수과장은 "장기 심화연수를 통해 앞으로 학교현장에서 원어민영어 보조교사의 역할을 대신 할 우수한 영어교사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따른 지원책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독서캠프 '책 읽는 놀이터'



속초평생교육정보관(관장 최상철)은 지난 12~14일 2박3일 일정으로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 2010 여름독서캠프 '책 읽는 놀이터'를 운영했다. 위스타트 속초마을운영센터 4~6년 어린이 50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독후활동을 비롯해 카트체험, 고공활강, 쉼터지 밸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우철 기자

중원 · 경희한의원 노인들 무료 진료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은빛사랑회’ 회원...매주 화 · 목요일

속초모범운전자회 차량 지원

속초시청 인근 중원한의원(원장 유문승)과 경희한의원(원장 이태현)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펼쳤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 따르면 두 한의원은 올해 6월부터 복지관에서 돌보고 있는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에 걸쳐 무료진료를 해오고 있다. 무료진료는 지난 3월 종합사회복지관이 독거노인 및 재가 장애인노인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생신잔치 자리에서 두 원장이 새로운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한 장애인노인이 두 원장에게 무료 진료를 요청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두 원장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생신잔치를 후원하는 봉사모임 ‘은빛사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인들은 진료에 있는 날 오후 1시 복



중원한의원과 경희한의원이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유문승 중원한의원이 노인들을 진료하고 있다.

지관에 집결, 차량으로 한의원까지 이동해 진료를 받는다. 복지관 반찬배달 도우미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속초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무료진료 소식을 접하고 차량운행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관 관계자는 “두 원장님은 어르신

들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까지 해 주고 있다”고 했다. 현재 한의원 통원치료는 노학동 주공3차단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동별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우철 기자

고성여성회관 수강생 모집

고성군이 제30기 여성회관 하반기 교육생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교육 과정 및 모집 인원은 취업교육 7개 과정 105명과 건강교육 2개 과정 40명 등 총 16개 과정 239명이며, 9월6일~12월3일 13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수강료는 월 1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장애인, 결혼이민자는 면제된다.

신청은 여성회관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전화(033-680-3663)나 팩스(033-680-3184)로 신청한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홍수 기자 ellan92@naver.com

사랑의 수화교실 수강생 모집

농아인협회 속초시지부(지부장 박대화)가 수화통역인 양성을 위한 ‘사랑의 수화교실’ 참가 희망자 30명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수화교실(초급, 중급)은 9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 매주 화 · 목요일 오후 7시 수화교육실에서 진행된다.

수화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중급반은 기초반 수료자에 한해 접수를 받는다. 교육비(교재비 포함)는 4만원이다. <문의: 632-3884, 636-0453> 이우철 기자

신흥사 어린이여름불교학교

2박3일간 진행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주지 우송)는 지난 13~15일 2박3일 일정으로 제6회 어린이여름불교학교를 열었다.

신흥사 설법전 등지에서 ‘태양과 같은 미소로 함께하는 여름불교학교’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여름불교학교는 찬불가배우기, 나의 소원적기, 마음을 정화하는 108배, 다도교실, 축구경기, 물놀이, 요가, 신나는 불교 퀴즈(골든 벨을 울려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우송 신흥사 주지스님은 “이번 어린이여름불교학교는 어린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 준비했다”며 “지역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품안에서 지혜와 자비를 겸비한 어린이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흥사는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 동안 어린이불교학교를 열고 있다.

이우철 기자 woodda18506@naver.com



신흥사가 마련한 어린이여름불교학교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설법전에서 요가를 배우고 있다.

자원봉사 체험수기 공모

강원도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참여의식 제고를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자원봉사 체험수기를 공모한다.

수기는 최근 3년 이내(2008년~현재) 자원봉사에 참여해 활동 당시 느꼈던 소감이나 보람, 안타까웠던 일 등을 A4 2~3매 분량으로 적어도 자원봉사센터 이메일(gwvc1365@hanmail.net)이나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 시 수기제목, 이름(소속단체), 주소,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봉사활동 내역의 사실 여부가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상에 제외된다.

이우철 기자

부지런한 광고

“새벽 첫 이슬보다 발빠른 광고를 만들겠습니다!”

이정종합광고

EJad Ejung total advertising

☎ 저렴한 가격으로 귀사의 아이템을 광고에 드립니다!
☎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TEL 631-9831~2
FAX 631-9833 공방 636-8966

태광디자인

Taegwang design POWER ON

☎ 최고의 디자인~최상의 효과를 누리십시오!
☎ 고객의 광고에 날개를 달어드립니다!

TEL 632-1100 (대)

露

고귀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속초시 조양동 1292-15 / 진덕맨션 후문 맞은편 위치

기고

2010 인구주택총조사, 자발적 참여 기대



최승준
동북지방통계청
속초사무소장

매 5년마다 한번 씩 실시되는 2010 인구주택총조사가 올해 11월 1일을 기점으로 보름간 진행된다. 사전준비조사 기간 3일과 방문조사 시작 전에 실시되는 인터넷조사 기간(10월 22일~31일)까지 합하면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셈이다.

동원되는 인력만 하더라도 공무원 6,000명과 조사요원 11만3,000명 등 총 11만9,000명에 이른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환경을 반영한 조사항목을 개발하고 응답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조사항목을 축소하는 등 참여자 중심의 효율적인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한다.

●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왜 중요한가

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의 모든 인구·가구·주택을 빠짐없이 조사하여 이들의 규모, 구조, 분포 및 경제·사회적 특성 등 종합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

인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그 조사결과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모든 통계의 기준이 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들은 국가 주요 정책의 기초자료와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2차 가공통계로 작성되어 다양하게 보고되기도 하며 민간기관 및 일반국민들이 연구 자료나 마케팅 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 2010 인구주택총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올해는 인구센서스의 해라고 할 만큼, 전 세계 63개국에서 센서스가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2010년 10월 22일~31일까지 열흘 동안 인터넷조사를 먼저 실시하며, 이때 응답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 조사가 이루어진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이름, 나이 등 기초적인 사항을 조사하는 전수항목 19개와 직업, 아동보육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사하는 표본항목 31개 등 총 50개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된다. 조사결과를 금년 말에 잠정 결과를 내고 내년 5월~12월 기간 중 최종결과를 부문별로 발표한다.

● 2010 인구주택총조사, 어떻게 달라지나

○ 인터넷조사 확대 실시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나라 IT인프라를 바탕으로 2005년 0.9%에 불과 했던 인터넷 조사율을 30%(560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럴 경우 조사표 약 560만부 절약과 조사비용 164억이 절감되는 엄청난 효과로 나타난다. 특히 인터넷조사는 우리나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사생활 보호의식 강화 등 급변하는 조사환경에 대응하여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고 안전하게 조사에 참여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 센서스

친환경의 그린센서스를 지향하는 이번 총조사는 질문항목 중 자전거 보유, 교통수단 보유 및 이용현황 항목을 조사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조사지침서, 조사사례집 등을 재생용지로 제작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센서스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 다문화가정과외국인을배려하는센서스

이번 총조사는 처음으로 국적 항목을 포함해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인구

분포 등 달라진 한국의 인구변화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시 언어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어 이외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총 9개 언어로 된 조사표를 만들고, 또한 정확한 안내를 위해 080 콜센터를 운영하며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를 활용해 외국인 전용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는 나라살림을 올바르게 설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밑거름이 되는 만큼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데, 일부 응답자들은 개인정보의 누설우려, 과세자료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 귀중한 시간의 낭비, 단순히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자를 문전박대하고 조사를 기피하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통계법적으로 수집된 개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통계법(제13조, 제14조)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외부 유출이나 목적 외 활용은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

통계의 신뢰성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사실 그대로의 답변이 가장 중요하므로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우리 모두 통계의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하는 주체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 총조사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한다.

독자투고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명전

‘그리스의 신과 인간’을 관람하고



박영도
북 에디터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그리스의 신과 인간’(5.1~8.29)전을 관람하기 위해 짧은 시간을 쪼개서 서울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평소 ‘홀로 천천히 자유롭게’라는 운신의 신조는 여기에서도 변할 수 없었다. ‘같이’는 서로 시간과 일정을 조율하여야 하는 등 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 외에도 제약되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한다. 동작역에서 4호선으로 환승, 동작대교를 건너면 바로 용산이촌역에서 내려, 2번 출구로 나가면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이다. 10여분 거리에 요금은 9백원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을 때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대한민국 저 멀리 변방에서 대영박물관 진품 소장품을 친견할 수 있음에 이 정도의 노력 없이 얻을 수 있겠는가. 정다운 사람과의 만남은 이곳에서 약속하고, 장시간 여행의 숨을 고르고 정다운 사람과 함께 기획전시실에 들어섰다.



전시관 구성의 첫째는 신과 영웅 그리고 아웃사이더, 둘째는 인간의 모습, 셋째는 올림피아와 운동경기, 넷째는 그리스인의 삶으로 나누어 관람 위주의 편의를 배려한 점이 돋보였다. 여기에서도 적어도 그리스 로마 신화는 어느 정도 알고 관람할 때 그리스 신화의 진수를 맛볼 수 있으며, 관람에 앞서 도록 한 권쯤은 갖추는 것이 유물에 관한 예의가 된다.

첫째 전시실 공간은 그리스 신화의 격이 높은 신과 영웅, 그리고 아웃사이더로 나

누어 격에 맞게 전시되어 있었다. 신에게도 위계질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신의 세계에 관한 객관적인 고찰이 가능했던 전시공간이다.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름의 신들을 형상화한 유물에 대한 이야기가 붙어 관람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신의 세계에서도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인간세계를 닮았다.

둘째 전시실 공간은 인간의 모습으로, 초기 그리스의 거친 신체의 표현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세기에 따라 인간신체의 균형미

를 다듬은 조각과 비대칭이기는 하지만 동작과 연결된 조각상들은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다.

셋째 전시실 공간은 올림피아와 운동경기,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민으로서 속한 도시에 충성하여야 하는 의무가 우선이었으며, 또한 그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이 있어야 했다. 까닭에 각종 운동경기가 성행하였고, 참가자들의 경쟁을 부추겨 운동을 발전시켜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판 아테네제전의 경우, 그리스에 머물지 않고 크게는 세계 각지 선수와 관중이 신체를 단련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의 축제의 한마당이 자 사회적 의무라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넷째 전시실 공간은 그리스인의 삶으로, 신에서 그리스의 인간으로 향한다. 그리스인들이 남긴 유물을 통해 인간의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과 그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있다. 후기로 갈수록 신에서 인간으로 다시 말해서 신화에서 인간으로 점차 하강하는 모습이다. 그 예로 인간에 관한 묘사가 현실적인 모습 그대로 담겨 있다는 점이다.

전체 전시구성은 유물을 따라 관람하는데 흥미를 끌게 유도하는 입체적인 전시공간을 연출하고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문명전을 비롯해서 특별한 전시를 관람하게 될 때면, 저 멀리 내 고장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다시 말하면 문화의 향수마저 양극화된 현상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새롭게 떠올랐다.

아는 만큼 보이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반칼럼

이반

극작가, 前 숭실대 교수

여의도에는 절(寺)이 없다

타계한 영화인을 추모하는 모임에서 “그 분이 무슨 영화를 만들다 돌아 가셨느냐고 물으니, ‘여의도에는 절이 없다’는 영화라고 한다.”

진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그러고 보니 여의도에서 사찰을 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세계에서 제일 큰 개신교가 있는 여의도에 절이 없으니, 사안에 따라선 종교간의 분쟁도 야기시킬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염려도 생긴다.

이창동씨가 ‘시’ 라는 영화를 찍을 때였다고 캐스트로 참여했던 분이 부연한다.

‘여의도에는 절이 없다.’ 맞는 말이다.

한강이라는 강 가운데 모래섬으로 존재하다가 전쟁통에는 경비행기 활주로로 활용되기도 하고 서울 시민의 쉼터로 이용되던 여의도가 아파트와 빌딩숲으로 변한 것은 80년대 이후의 일이다. 국영방송 KBS 본사와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이다.

국회의사당을 떠올리니까 타계한 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불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자비라고 생각한다. 자비는 사랑이고, 기독교도 사랑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본다.

그런데 ‘여의도에 절이 없다’니, 결국 여의도 한 가운데에 있는 국회가 자비나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자고 있었다. 자비와 사랑으로 민생 문제를 끌어안고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며 책임져야 할 국회가 자신이 속한 당파의 결속과 이익을 앞세워 행동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고성군은 이명박정부가 들어서고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어 관광객의 발길이 뜸해졌다. 선물 가게나 음식점들의 어려운 사정은 매체를 통해 여러 번 소개되었다. 바다에선 수운의 변화로 잡히던 생선도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정부 이전에 백성들의 민

의를 대표한다는 국회가 나설 수도 있다. 그런데 국회도 정부도 감감 무소식이다.

고성의 아름답고 수려한 도원리에 국회 연수원이 들어선다고 했다. 도시마다 컨벤션 센터다 호텔이다 야단인데 국회가 연수원을 또 짓는다니 그게 우리 정서나 형편에 맞는 이야기인가 생각하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어떻게 되든 연수원을 짓고 운영하는데 사람의 손이 필요할 터이니 지역주민으로선 기다려지는 일이고, 기대도 걸어볼 만하다.

그런데 계획은 오래전에 세워 놓고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여의도에는 절이 없다.’

일설에 타지역의 힘이 있는 국회의원이 국회 연수원 프로젝트를 자기 지역으로 끌고 가기 위해 지연시켜 고성 도리원 계획이 중단되고 있다고 한다. 사실이 아닐까 바란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나라의 모든 계획과 설계가 정글의 논리로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지역구의 표와 정당내에서의 관계, 정파간의 이익, 이런 것들에 의해 국회가 흘러간다면 그것은 백성과 자연에 대한 자비와 사랑으로 흘러가야 될 나라가 제 길에 들어서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얼마 전 청초호 호반에서 대한민국 음악제가 열렸다. 일 년에 한번쯤은 설악지역 주민들이 유명 가수의 노래도 듣고 몸도 움직여 심신의 휴식을 취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청초호반에 절이 없다.’

‘속초시청에 절이 없다.’

청초호 물 밑에 살고 있는 고기들은 어떻게 하라고? 호반에서 잠들고 있는 새들은 어떻게 하라고? 갈대 한적한 숲 속 알 속에서 부리를 내미는 어린 생명은 어떻게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불꽃을 하늘에 뿌리는가?

절, 자비와 사랑으로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더불어 살아야 할 인간의 바른 자세가 필요한 계절이다.

| 사설 |

무상급식, 도시경쟁력으로

황종국 고성군수는 지난 16일 민병희 도교육감과 만나, 내년부터 전체 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구 감소와 학생 외부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존립을 위해서도 무상급식 도입은 필요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복지를 향상시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고성군은 최근 3만인구가 무너져, 군세가 크게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복지혜택마저 다른 지역에 뒤쳐진다면 집을 찌는 주민들이 늘 수밖에 없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연장선에서 바라봐야 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이다. 학교급식비를 따로 걷지 않아 지역주민의 가계에 직접적인 보탬을 주고, 급식비를 면제받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는 일도 없게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로컬푸드’ 운동과 연계돼 지역의 농수산업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쓸데없이 새나가는 낭비성·선심성 예산을 줄이면 가능한 일이다.

도교육청은 지자체의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50%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미 정선과 평창, 횡성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한해서만 예산을 지원할지, 아니면 모든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해 가능한 범위에서라도 무상급식이 이뤄지도록 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로 결정될 경우, 무상급식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지자체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해 결국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지역주민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현명한 판단이 뒤따르길 바란다. 아울러 강원도도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고, 무상급식이 도내 전체로 확산돼 도민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설악신문 1990년 5월28일 창간 / 1992. 6. 12 제3종 우편물(가)인가

- 창간이념 : 지역사회와 밀접, 지방문화의 활성화
생활정보의 전달, 주민을 위한 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명중 · 전무이사 : 고영진 · 편집국장 : 장재환
- 인쇄처 : 대인프린테크
- 편집 광고국 : tel. 033. 636-2222, fax. 033. 636-2227
- 등록번호 : 1990. 3. 16 강원 다 01008
- 구독료 : 월 3,500원 / 1년 40,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기 고

안전의식은 ‘밥상머리교육’으로 시작돼야!



조환근

속초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지금은 팔순을 넘기신 어머니가 예전에 해마다 1년 사주팔자를 보시고 오셔서 주의하라고 당부하시던 항상 똑같은 말씀이시다.

그 때문인지 지금껏 내 생활에서 물 혹은 불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느낀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머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5단계설을 통

해 인간은 생리적인 욕구가 만족되면 자연스럽게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추구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안전

이 확보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소속과 사랑에 대한 그리고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렇듯 인간은 그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삶을 영위해 나가고 싶은 욕구가 강렬하다.

하지만 오늘도 항상 그렇듯 각종 보도매체에서는 반갑지 않은 크고 작은 사건·사고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여름철에 흔히 발생하는 해변에서의 사고만 봐도 그렇다

속초, 고성, 양양지역에는 해수욕장만도 48개소가 있으며, 해변의 길이는 1만8,525m에 이른다. 지난해 280만여 명의 피서객과 43만여 대의 차량이 지역을 찾아왔다.

이에 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각 기관에서는 인명구조

대원과 지역주민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고 각종 안전시설물을 확충·보강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 피서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어 해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피서지에서의 사고뿐만 아니라 계절별로 기상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사고와 일상적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모든 사고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한 교육자의 ‘밥상머리교육’이 다시금 떠오른다.

지난날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밥상 앞에서 항상 가르치고 훈계하였듯 어린아이 때부터 각 가정에서 식구들이 모였을 때 안전에 관한 반복적 대화와 주입식 교육을 통하여 무의식중에 몸에 배게 하자는 것이다.

이 ‘밥상머리교육’으로 안전에 관한 의식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날 때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이 보장될 것이다!



전용농공단지 산업용지 분양공고

고성군에서 조성중인『고성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지역특화단지)』에 대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2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양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4일 고 성 군 수

1. 조성개요

가. 위 치: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304-11번지 일원(국도7호선 인접지역)
 나.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다. 조성면적: 103,715㎡(생산 71,463, 지원 3,136, 공공 29,116)
 라. 준공예정: 2011. 8월중(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사업시행자: 고 성 군 수

2. 분양기준 및 가격

가. 분양기준: 1,650㎡이상
 나. 분양가격: 70,000원/㎡(231,400원/3,3058㎡)

3. 입주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에 한함

1	식료품 제조업(10)	2	음료 제조업(11)
---	-------------	---	------------

4. 분양대상: 71,463㎡(생산시설용지)

5. 공고(접수)

가. 공 고: 2010. 8. 24 ~ 9. 13
 나. 접 수: 2010. 9. 1 ~ 9. 30

6. 기 타

세부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http://www.goseong.org>, 행정→고시공고) 참고

설악신문 광고

이리서 좋다!

- 많은 발행부수와 그물망 배포로 광고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광고료가 저렴합니다.
- 광고효과가 1주일간 계속됩니다.

구독 제보 광고문의

TEL 033)636-2222

FAX 033)636-2227

www.soraknews.co.kr

